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6

느헤미야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느 헤 미 야

Nehemiah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9:33)

וְאַתָּה צַדִּיק עַל כָּל־הַבָּא עָלֵינוּ
כִּי־אָמַת עָשִׂיתָ וְאֲנַחְנוּ הִרְשָׁעָנוּ:

느헤미야 차례

느헤미야 서론	〈12제〉	83
제 1 장 언약의 백성에 대한 느헤미야의 비애	〈20제〉	87
제 2 장 느헤미야의 귀국	〈16제〉	94
제 3 장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	〈18제〉	101
제 4 장 대적들의 궤계와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비	〈16제〉	108
제 5 장 사회적 불의(不義)의 타파	〈20제〉	113
제 6 장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완료되다	〈21제〉	120
제 7 장 바벨론에서 일차로 귀국한 백성들의 계보	〈18제〉	125
제 8 장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草幕節)을 지키다	〈21제〉	131
제 9 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18제〉	137
제 10 장 언약에 인(印)친 방백들과 백성들의 맹세	〈17제〉	143
제 11 장 예루살렘 거민(居民)을 증원(增員)시키다	〈22제〉	150
제 12 장 예루살렘 성곽(城廓)을 봉헌(奉獻)하다	〈19제〉	156
제 13 장 느헤미야가 실행(實行)한 개혁(改革)의 구체적 내용	〈22제〉	163

느헤미야 특별 자료 차례

느헤미야 서론 〈연구 자료〉 유대의 애국자 느헤미야	86
제 1 장 〈화보 자료〉 유대인의 명부(名簿)	92
제 1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자비	93
제 2 장 〈화보 자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	98
제 2 장 〈연구 자료〉 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	99
제 3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 성벽	107
제 4 장 〈연구 자료〉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	112
제 5 장 〈연구 자료〉 세금에 대하여	118
제 7 장 〈본장의 요절〉	130
제 8 장 〈연구 자료〉 감람나무(olive tree)	136
제 10 장 〈연구 자료〉 정경(正經)의 역사	148
제 12 장 〈화보 자료〉 수금(豎琴)	162
제 13 장 〈본장의 요절〉	169
제 13 장 〈연구 자료〉 안식일과 주일	170
제 13 장 〈지도 자료〉 팔레스틴으로의 귀환	172

느헤미야 서론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 ㉡ (1)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본서와 에스라서가 내용상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권을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하였다.
(2) 그러나 70인역(LXX)에서는 본서를 에스라서와 구분하여 '느헤미야'라고 칭하였다.
(3) 그 후 제롬(Jerome)의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도 '느헤미야'라고 칭하였으나 바티칸 사본에서는 '제 2 에스라서'라고 칭하였다.
(4) 그런데 1525년에 나온 봄베그(Bomberg)판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본서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느헤미야'라고 칭하였다.
(5) 오늘날 번역된 모든 성경에서는 본서를 '느헤미야'라고 칭한다. 그것은 본서의 내용 가운데 주요 인물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이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2)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주어가 1인칭 단수라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임을 입증한다.
(3) 비록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8:9;10:1;12:26,47) 이것은 자신을 동시대 인물들과 함께 열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일 뿐이다.
(4) 그러므로 본서는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지난날의 자신의 행적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대인 B.C. 445-425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본서는 그가 공직에서 은퇴한 B.C. 421년에서부터 그가 사망한 B.C. 40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B.C.464-424)의 치세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2) 아닥사스다 1세 때는 이미 바사 제국 내에 부패의 요소가 잠재해 있었으나 애굽을 무찌르고 또한 헬라와의 평화 조약으로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제국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3) 당시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의 2차 귀환(B.C. 457) 후 힘이 약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4)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예루살렘을 중심한 언약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의 회복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주변 이방인들의 미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본서의 배경을 이룬다.

5. ㉠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 (1)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지파에 속했던 하가라의 아들로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B.C. 464-424)에게 신임을 받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1:1-2:1; 비교, 7:7).

- (3) 그 후에 그는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B.C. 443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B.C. 425년에 민족의 개혁을 위해 다시 귀국하였다.
- (4)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 (5) 따라서 그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지위를 버리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城)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힘쓰게 되었던 것이다.

6. **㉠** 본서와 에스라서의 관계를 설명하여라.

- ㉠** (1) 본서와 에스라서는 역대기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제사장 문서'로 불리어 진다.
- (2) 에스라서는 영적인 요소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나 본서는 사실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 (3) 한편 에스라서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사건과 본서가 처음으로 다루는 사건 사이에 몇 년 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것은 두 인물의 본국 귀환 시기가 각기 다름을 말해 준다.
- (4) 그러나 양서(兩書)는 모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 것이다.

7. **㉠** 본서의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폐허화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2) 물론 이러한 재건과 회복과 개혁은 영구한 것이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 (3) 그러나 그것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적 예언으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8. **㉠** 본서의 내용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서가 서술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재건과 언약의 백성의 회복과 개혁으로서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 (2) 또한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의 탄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전히 외국 왕의 종들이었다(9:6).
- (3) 이런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구적이고 완전한 구속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인생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비록 제한된 것이지만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5) 즉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일시적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가르쳐 주며 소망케 하는 것이었다.
- (6) 이런 의미에서 본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9. **㉠** 느헤미야를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느헤미야는 본문 중에서 '나의 의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5:19; 13:14, 31)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기만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2) 위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 (3)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다.

(4) 그러므로 증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느헤미야에게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를 증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0. ㉠ 본서와 말라기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1) 본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이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이다.
- (2) 그런데 본서에 나타난 죄악상을 말라기서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언 활동을 한 것 같다.
- (3) 즉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이 지나간 후 백성과 제사장들은 안일에 빠져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타성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 (4) 여기서 말라기의 통렬한 비판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빛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시적 부흥 운동은 영구한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긴 암흑의 시대로 빠져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은 앞으로 나타날 밝은 빛, 즉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의 재건/1:1-7:73
 - 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1:1-2:20
 - ㄱ. 예루살렘의 상황/1:1-7
 - ㄴ. 느헤미야의 간구/1:8-11
 - ㄷ. 아닥사스다의 조서/2:1-10
 - ㄹ. 성벽 답사/2:11-20
 - ② 성벽의 증축/3:1-7:4
 - ㄱ. 작업 할당/3:1-32
 - ㄴ. 방해자들/4:1-6:14
 - ㄷ. 성벽의 완공/6:15-7:4
 - ③ 돌아온 백성의 계보/7:5-73
- (2)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의 갱신/8:1-10:39
 - ① 율법의 낭독/8:1-8
 - ② 백성의 슬픔과 기쁨/8:9-18
 - ③ 백성의 회개/9:1-38
 - ④ 언약서에 인(印)을 치다/10:1-27
 - ⑤ 언약에 대한 책임/10:28-39
- (3) 언약의 백성의 개혁/11:1-13:31
 - ① 지역과 인구의 재조정/11:1-12:26
 - ② 새 성벽의 봉헌식/12:27-47
 - ③ 백성의 부흥 운동/13:1-31

12.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公義)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9:33).

연구자료

유대의 애국자 느헤미야. '느헤미야' (Nehemiah)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심'이다. 그는 유대의 명문 출신으로 하가랴(Hachaliah)의 아들이다(1:1).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은 수사(Susa)에 간 공식 사절단의 한 사람이었는데(1:2) 훗날 그는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었다(7:2). 느헤미야와 그의 부친의 이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 (jah)라는 말이 들어 있음을 보아 그의 가족들이 유대의 정통 신앙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팔레스틴 침공시 포로로 잡혔다가 페르시아 치세 하에서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B.C. 464-423)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였다(1:11). 이처럼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있던 그는 앞에서 밝힌 사절단의 일원으로 수사에 온 그의 형제로부터 팔레스틴에 있는 동족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1:3).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며, 금식하는 가운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일단 그러한 결심을 한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왕께 자기의 간곡한 소원을 아뢰었으며 허락을 받았다(2:5-10).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가식이 없는 동족애와 애국심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을 떠나 있어 보아야 조국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외국에 나가 그곳에서 공직(公職)을 얻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자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기 위하여 황폐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편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먼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력하였다(3장). 성벽의 재건은 적의 침입을 막고 그곳에 사람들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벽 재건 작업은 에스라가 주도한 이스라엘 부흥 운동(스 3장)의 한 부분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성벽이 완공되자(6:15)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들간에 만연해 있는 악습을 척결하기 시작하였다(13장).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유대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이 길만이 진정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비록 조국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국과 동족을 사랑하며 애쓴 애국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제 1 장 언약의 백성에 대한 느헤미야의 비애

단락구분 1-3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다 / 4-7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회개 / 8-11 느헤미야가 모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1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 이십 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폐파되고 성문들은 소파되었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

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축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아다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애기를 듣고 깊은 상심에 빠졌다.
- (2) 느헤미야가 상심에 빠진 까닭은 언약의 땅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3)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안락한 궁정에 있었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4)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부패나 죄악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며 바르게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2. ㉠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인가? (1절)

- ㉠ (1) 바사 왕 아다사스다 1세가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B. C. 445년경 '기슬르 월' 이었다. 여기서 '기슬르 월'은 태양력으로 11, 12월에 해당된다.
- (2) 즉 느헤미야는 B.C. 445년 11, 12월경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다.

3. ㉠ 당시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는가? (1절)

- ㉠ (1)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내의 수산 궁에 있었다.

- (2) 여기서 말하는 수산은 그 당시 엘람(Elam)의 수도로서(렘 25:25) 울래(Ulai) 강 상류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이었다(참조, 단 8:2). 그러나 B. C. 660년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68-626, 스 4:9, 10)에 의해 점령된 후, 계속하여 바벨론, 바사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에 1:2).
- (3) 이러한 수산에다 아다사스다 1세는 자신이 겨울에 사용할 궁전을 두었는데 이곳이 당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 궁'이다.
- (4) 이처럼 느헤미야는 적국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고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최악과 싸우며 살고 있으나 우리가 장차 거할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겠다(히 11:16).

4. **㉠** **하나니는 누구인가? (2절)**

- ㉠** (1) 하나니는 본서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친형제이었다(7:2).
- (2) 본절에서 물론 '나의 형제 중 하나니'라는 표현은 친척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하나니는 느헤미야에 의해 분명하게 '내 아우'라고 칭해졌던 것이다.
- (3) 본서에서는 하나니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의 낙성식 때 악사장(12:36)이었던 사람으로서 상기(上記)한 하나니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5. **㉠**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물어 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느헤미야는 언약의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의 땅의 상황에 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친동생 하나니를 유다로 보냈던 것이다.
- (2) 그때 하나니는 유다까지의 여행이 최소한 4개월 정도나 걸리는 어렵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가서 그곳의 참혹한 광경과 형편을 목격하고 거기에 살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수산으로 돌아와 느헤미야에게 목격한 사실을 보고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우리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기 위해서 온 마음과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히 11:16).

6. **㉠**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이들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귀환한 자들을 가리킨다(에 2:1).
- (2)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으나(렘 5:6) 그분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포로 생활 중 멸절되지 않고 살아 남아 있었던 것이다(에 3:11).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중의 얼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날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엨 2:5).

7. **㉠** **당시 유다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3절)**

- ㉠** (1)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B.C. 586, 왕하 25:6-12) 바벨론을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사 제국의 강력한 통치 밑에 있었다(대하 36:23).
- (2) 그리하여 그 땅은 바사 제국의 127도(에 1:1) 중에 한 도로 편입되고 말았다.
- (3) 게다가 주변의 이방인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어서 유다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훼손된 채 복원되지 못하였다(스 4:9, 10).
- (4)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 (5) 사실 고난은 사람을 옳게 만들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방법이다(참조, 시 119:67, 71; 약 5:13).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8. **㉠**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타 버린 채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로부터 142년 전에 (B. C. 587)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성을 불태웠었다(대하 36:19).
- (2) 그러나 B.C. 515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귀환한 자들은 B.C. 515년에 비로소 두번째로 성전을 완성했으나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재건하지는 못했었다(스 6:15).
- (3) 그 후 B.C. 457년 2차로 귀환한 에스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에 의해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태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스 4: 12, 13, 21, 23).
- (4) 이러한 정황은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 준다(사 26:14).
- (5)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사 30:18).

9. ㉠ **하나님의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4점)**

- Ⓐ (1) 당시 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훼파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2:3).
- (2) 즉 그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한 형편에 처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2:3).
- (3) 따라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강렬했던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나서 비록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바사의 궁전에 있었지만 위안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통곡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연대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의 곤경과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벧전 3:8).

10. ㉠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들은 후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4점)**

- Ⓐ (1) 그는 비록 이방 나라에 있는 몸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이란 의식이 분명한 신앙인이었다(참조, 대하 23:16).
- (2) 그러므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서는 슬픔으로 금식하며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렘 15:21).
- (3) 그의 이러한 기도는 기슬르 월(태양력 11,12월)부터(1절) 봄이 되어 여행이 가능했던 니산 월(태양력 3, 4월)까지(2:1) 계속되었을 것이다.
- (4) 느헤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행위였다(대상 29:11).
- (5)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곤궁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요히 살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행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대상 29:11).

11. ㉠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4점)**

- Ⓐ (1) 이 말은 인간들에 의해서 고안된 땅의 신(神)들 곧 우상들과 구별되는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 (2)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의 궁전에 있으면서도 이방의 종교에 물들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있었다(9:8).
- (3)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고 믿어야 한다(요 15:19).

12. ㉠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였는가? (5점)**

- Ⓐ (1) 그는 먼저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으로 칭함으로써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다(시 103:19; 계 19:6).
- (2) 그 뒤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묘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하게 경외되어야 할 분인가를 말해 준다(시 96:3).
- (3) 더우기 그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긍휼을 베푸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였다(왕상 8:23; 시 25:6).
- (4) 우리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알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요일 5:14).

13. Ⓢ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5절)

- Ⓐ (1) 이스라엘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창 12:2,3; 17:2,4)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 (2) 이러한 약속은 모세 때에 이르러 시내 산에서 성문법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출 19장)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 (3)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B.C.586년에는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갔다(대하 36:19, 20).
- (4)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준 언약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렘 22:9).
- (5)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던 것이다(왕하 25:27-30).
- (6)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신 7:9; 롬 4:13).

14. Ⓢ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언약회 관계는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언약이었다(왕상 8:23).
- (3)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의 결과이고, 그 관계는 왕과 종의 관계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와 같이 양육하셨다(사 1:2; 30:1).
-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도 너무나 큰 은혜의 결과이고 찬송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마 22:37).

15. Ⓢ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6-11절)

- Ⓐ (1)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6,7절).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 (2)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어려운 곤경에서 건져 주시기를 호소하였다(7-10절).
- (3)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로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시는 참된 중보자이시다(롬 8:34).
- (4)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딤후 2:5).

16. Ⓢ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는가? (7절)

- Ⓐ (1)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주님의 제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 (2)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하는 죄악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법을 범하는 구체적인 것이다.
- (3) 따라서 죄있는 자와 상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사 1:18).
- (4)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러나 이런 용서의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전 15:3; 히 2:17; 요일 1:9).

17. **㉠**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중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8,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때 들어 주신다.
- (2)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잘 살펴보고 그 중에서 레 26:27-45; 신 28:15,47, 58-68; 29:24-30:5 등에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 (3)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징벌하시고 또한 범죄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 (4)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이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눅 18:1).

18. **㉠** 당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11절)

- ㉠** (1) 그들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그들이 그때에 겪고 있던 수치와 능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다(참조, 사 11:11-16).
- (2)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의 쇠퇴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되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음이 분명하다(출 19:5, 6).
- (3) 그런데 본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마 6:9, 10).

19. **㉠** 본문의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1절)

- ㉠** (1) 본문의 '이 사람'은 당시의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킨다.
- (2) 느헤미야가 당시 그 왕의 신하로서 이렇게 왕을 칭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참조, 단 2:37, 38).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세상의 권세잡은 자들을 바르게 평가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롬 13:1).

20. **㉠** 당시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1절)

- ㉠** (1) 당시 술 관원은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다(참조, 창 40:21).

- (2)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유다의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왜냐하면 당시 동방의 황제들은 자기들을 시중하는 사람들을 왕족 중에서 채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참조, 단 1:3).
- (3) 70인역(LXX)은 이 ‘술 관원’이란 말을 ‘환관’으로 번역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환관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왕의 통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 (4) 그러나 그는 그의 지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깊고 그 권세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시 127:1).

화보자료

유대인의 명부(名簿). 아래의 사진은 미국 신시내티(Cincinnati)의 히브루 유니언 칼리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에 정착한 유대인의 명부이다. 이 명부는 히브리어와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7, 8절).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이다(5절).

연구자료

하나님의 자비

자비(慈悲)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그분의 동정, 인내, 용서, 사랑, 친절, 구원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자비는 용서 및 긍휼히 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에는 자비의 갖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 있는데 본고(本稿)는 그 용어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의 여러 속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구약에서의 자비

① <과함> : '자비'의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서 원래는 자비의 대상에 대하여 느껴지는 동정이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장소를 의미했다(창 43:30; 왕상 3:26). 성경에서는 주로 '동정'의 뜻을 나타냈는데(사 13:18; 렘 42:12) 구속받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시 103:4).

② <헤세드> : '인자', '확고한 사랑'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용어가 고대에는 언약 관계에 충실한 헌신이나 신실이라는 의미를 포함했으나(출 20:6; 수 2:12-14) 후대에는 이런 의무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감정적인 내용만 나타나게 되었다(렘 3:13; 스 7:9).

③ <하난> : 이는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뜻을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친절할 것을 명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시 37:21; 잠 14:21).

(2) 신약에서의 자비

① <엘레오스> : 주로 동정심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단어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호소할 때 사용되었다(마 9:27; 15:22; 막 10:47; 눅 17:13).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 (仁) 이나(마 23:23) 팔복 가운데 나오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도(마 5:7) 이 단어와 관계 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 와 같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참조, 마 9:13; 눅 1:50, 54, 72, 78).

② 이외에도 '인자'를 나타내는 <엘레모쉬네>, '호의', '관용'을 의미하는 <에피에이케이아>, '선량함', '친절'이라는 뜻의 <크레스토테스>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

(3) 결론

본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히, 헤세드)에 근거하여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다(5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깊은 돌보심'이기 때문이다(참조, 8, 9절). 오늘날의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벧전 1:3).

제 2 장 느헤미야의 귀국

단락구분 1-8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주장하시다 / 9-10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다 / 11-16 느헤미야가 광범한 성벽을 시찰하다 / 17-20 성을 재건토록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다

1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 نيسان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5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삼 일에

12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14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16 방백들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8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1. **㉠** 본장에 열거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누구의 뜻에 의해 진행되었는가?

㉠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다.

- (2) 그런데 특별히 아닥사스다 1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라는 조서를 내렸다.
- (3) 또한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들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 (4) 한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벽의 상태를 조사하였고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촉구하였다.
- (5)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 (6) 이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일을 하려는 종들에게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후 12:9).

2. **㉠ 1장과 2장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가? (1절)**

- ㉠** (1) 본문에서 니산 월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1장의 기슬르 월(11, 12월)로부터 3, 4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알 수 있다(1:1).
- (2) 그런데 본장에는 그 동안의 정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기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 25:1-13).

3. **㉠ '왕의 앞에' 라는 말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가? (1절)**

- ㉠** (1) 이 말을 70인역(LXX)에서는 '나의 앞에' 라고 번역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왕을 모시는 차레가 느헤미야에게 돌아 왔을 때' 라고 설명한다.
- (2) 그러나 이 말은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서 왕을 모셨을 때 왕 앞에 있는 식탁에 놓여진 술잔에 독이 들어 있는지 시음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깊은 근심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의 일상 업무를 소홀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에 아무리 커다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벧전 1:6).

4. **㉠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愁色)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2절)**

- ㉠** (1)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한 깊고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가 없었고 그것이 얼굴에 수색으로 나타난 것이다.
- (2)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슬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며 또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약 4:8-10).

5. **㉠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1세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절)**

- ㉠** (1) 아닥사스다 1세는 평상시와 달리 느헤미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2) 그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색을 보고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근심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 (3) 당시 이방의 왕들은 독재 군주로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분에 따라 그 아래 사람들의 생명과 지위가 좌우되는 실정이었다.
- (4) 이런 상황에서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 (5) 이처럼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은 그 종들의 선한 슬픔과 근심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 종들을 돌보신다(마 11:25).

6. **㉠**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당시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행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자이므로 왕 앞에 슬프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다. 즉 왕이 그런 것을 이유로 느헤미야를 완전히 파면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를 슬프게 만든 원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재건 운동을 중단케 한 자가 바로 그 왕이었기 때문이다(스 4:7-24).
- (3)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1:11)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의함으로 바라면서 두려워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여야 한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시 23:4).

7. **㉠**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3절)

- ㉠** (1)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행위였다.
- (2)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근심거리들을 왕에게 담대하게 아뢰었다.
- (3)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의 정당한 권위에 대해 존중하여야 한다(롬 13:1).
- (4)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세자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핍박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항거하여야 한다(엡 6:11, 12).

8. **㉠** 왕이 호의를 베풀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태도와 답변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4, 5절)

- ㉠** (1) 먼저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그리고 그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을 왕에게 요구하였다. 즉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 성을 증진토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히 10:22).

9. **㉠**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체적으로 청한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6-8절)

- ㉠** (1) 왕의 호의를 얻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체류할 기한을 왕에게 말한 후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구하였다.
- (2) 그것은 첫째,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바사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 (3) 둘째로는 당시 제국의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왕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증진할 재목(材木)들을 달라는 것이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한 것같이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구하여야 한다(히 5:7).

10.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느헤미야가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그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2) 즉 아무리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 (3)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느헤미야를 돕도록 하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시다(행 17:24, 25).

11. **㉠**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누구인가? (10절)

- ㉠** (1) 산발랏은 모압의 호른 지방 출신이었고, 그와 연합한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다.
- (2) 당시 산발랏은 바사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으며, 도비야는 그의 고관이나 고문관이었을 것이다.
- (3) 그런데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격렬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인과 암몬인의 증오를 대표한다(대하 20:10-21).
- (4)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항상 적대하는 세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벧전 5:8).

12. **㉠** 산발랏과 도비야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꾀하고 바라는 자들이었다.
- (2) 그런데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유대인 느헤미야를 유다로 파송하였을 때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임을 알고서 근심하였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욱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 (4) 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데 반해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의 진면을 깨달은 사실과 비교될 수 있다(마 8:29).

13. **㉠**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1-16절)

- ㉠** (1) 느헤미야는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땅, 그의 조상들이 자는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가 할 일을 진행시켰다.
- (2) 그는 우선 예루살렘 성의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알리지 않고 3일 동안을 쉬었다.
- (3) 그러나 그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 (4)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화하시는 대로 먼저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모르게 성벽을 답사하였다.
- (5)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갈 5:16).

14.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한 후 무엇을 하였는가? (17, 18절)

- ㉠** (1) 느헤미야는 비로소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권고하였다.
- (2)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하여 자신을 도와 주셨던 사실을 말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 (3) 그리하여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용기와 담력을 얻고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하였다.
- (4)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곤궁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신 31:6).

15. **㉠** '아라비아 사람 계셈'은 누구인가? (19절)

- ㉠** (1) 당시 계셈은 아라비아의 족장으로서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강적 중의 한 명이었다.
- (2) 그래서 그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합세하여 예루살렘 성을 증진하는 일은 바사 왕을 향

해 반란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은 항상 대적의 방해를 받는다(고전 16:9).

16. **㉠**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의 위협과 꾀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20절)

- ㉠** (1)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도리어 굳게 서서 항변하였는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그들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2) 이때에 그는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8, 9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으로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는 하나님의 법을 담대히 선언하였다.
 (4)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답이었지(신 23:3-6)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5)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므로 그들이 하려는 일이 자기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었다.
 (6)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것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바른 지식과 확신으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해야 할 것이다(약 4:7).

화보자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 아래의 사진은 파리에 있는 생 에티엔 수도원에 있는 17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느헤미야는 비록 피정복 국가의 백성이었지만 아닥사스다(Artaxerxes) 왕의 술을 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1절).

연구자료

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

성경에는 술에 관한 기록이 총 387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직접적인 관계 귀절이 212번, 간접적인 관계 귀절이 175번 나온다. 성경의 배경이 된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술은 일반적으로 대추야자나 석류로도 만들어졌지만 거의가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였다. 이와 같은 술은 히브리인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술은 성경에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긍정적인 면

팔레스틴에 있어서 물은 비교적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오늘날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다.

① 일상 생활에서의 용도 : 포도주는 매 식사시에 음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창 14:18; 27:25) 연회시에도 사용되었다(요 2:1-9). 이런 일면은 '연회'나 '잔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슈테>가 '음주'(飲酒)를 의미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포도주는 아비가일과 시바가 다윗에게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들을 선물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삼상 25:18; 삼하 16:1) 상급자에게 바치는 선물이나 예물로도(신 12:17; 14:23; 민 18:12) 이용되었다. 한편 무역 상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포도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공급한 대가로 두로 왕 히람의 종들에게 다른 물품들과 더불어 주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포도주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즉 현기증을 일으키는 사람을 회복시키고(삼하 16:2) '비위와 자주 나는 병'에 대한 처방으로도(딤펴전 5:23),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는 약으로도(눅 10:34) 사용되었다.

② 제물로서의 용도 :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이 포도주가 제사에 사용되었다. 예배자들은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오를 때면 언제나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으며(삼상 1:24; 10:3) 어린 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과 혹은 이러한 것들의 혼합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쳤다(출 29:40; 레 23:13; 민 15:7, 10; 28:14).

(2) 부정적인 면

알콜 중독이 고대의 주요한 사회악 중의 하나였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많이 있다. 노이는 포도주를 마시고 몹시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결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비

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창 9:20-27). 이외에도 롯(창 19:33, 35), 나발(삼상 25:36), 압몬(삼하 13:18), 엘라(왕상 16:9), 수리아 왕 벤하닷과 동맹한 32인의 왕들(왕상 20:16) 등을 술로 인해 수치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도를 벗어난 술취함은 언제나 개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방종과 수치와 패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사야는 술이 마음을 혼미케 하며(사 28:7) 영웅 심리에 빠지게 한다(사 5:22)고 선언하면서 당시 독주로 인해서 비를거리고 옆걸음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였다(사 5:11; 56:11, 12). 선지자 미가도 역시 백성들이 포도주와 술취함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원한다는 사실에 불평을 토로하였다(미 2:11). 뿐만 아니라 잠언 저자도 술취함의 폐단으로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떠드는 버릇이 있으며(잠 20:1; 23:19-32), 자기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며(잠 31:4, 5) 가난하게 되고(21:17; 23:20, 21), 결국은 재앙과 슬픔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한다는 점을(잠 23:29-32)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술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술 또한 인간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내에서는 술을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물론 이런 요소는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온 초기 선교사들이, 당시 외세의 침략에 기울어가는 구한말(舊韓末)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좌절과 공허감에 빠져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백성들을, 그러한 도탄에서 건져내는 급선무가 술을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내에서 금주 운동을 강력히 전개한 사실로부터 기인된다. 그러나 술 문제가 죄 문제와 직결된다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 술을 먹는 것이 정죄(定罪)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건덕상(健德上)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폐단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만, 혹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서 이 문제의 해답은 각자의 양심과 태도에 맡길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이 인체의 면역성을 파괴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등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성도의 덕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술취함'을 방탕과 생활의 염려 등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다(눅 21:34). 또한 사도 바울도 '술취함'을 음란, 호색 등과 같이 '어두움의 일'로 간주하였고(롬 13:13), 사도 베드로조차도 '술취함'을 구습을 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자취라고 설교하였다(벧전 4:3).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금주의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

단락구분 1-5 양문부터 옛 문 앞까지 건축한 자들 / 6-12 옛 문부터 골짜기문 앞까지 건축한 자들 / 13-27 골짜기 문부터 오벨 성벽까지 건축한 자들 / 28-32 미문부터 양문까지 건축한 자들

1 때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 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플라다와 메로논 사람 야논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8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옷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함풍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추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암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레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일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14 분문은 벨학계편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5 샘문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16 그 다음은 벨셀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야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추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중수하였고

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에 있는 굳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2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3 그 다음은 베나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25 우세의 아들 발람은 성 굽이 맞은편과 왕의 뒹 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끝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26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추 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

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나와 살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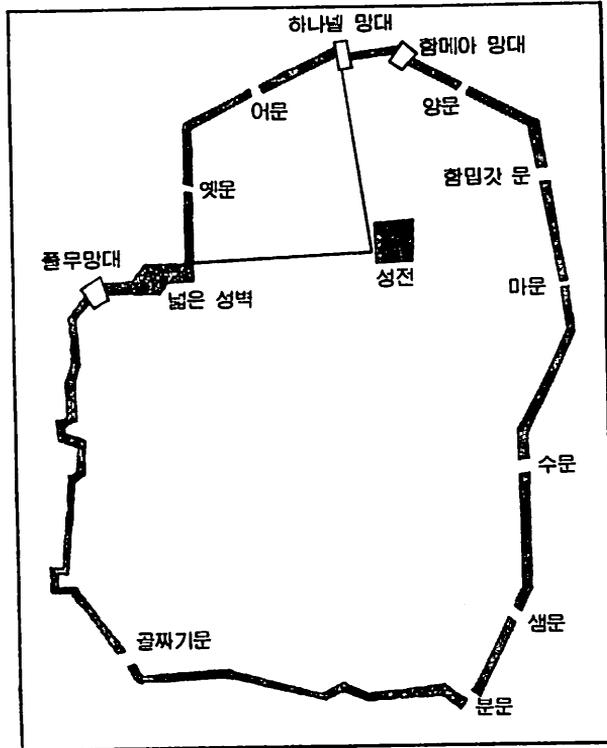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립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32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1. ㉠ 본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았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들은 먼저 기존 성벽들을 정돈한 후 성벽을 차례로 완성하였는데 모두 42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였다.
 (3) 그들은 북쪽 성벽의 양문(羊門)에서부터 어문(魚門), 옛 문, 골짜기 문, 분문(糞門), 샘문, 수문(水門), 마문(馬門)을 거쳐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완전히 중건하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한다(시 127:1; 행 2:44).

2. ㉠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성문과 망대들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1-32절)

- ㉠ (1)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이 완전치가 않아 성문과 망대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 그러나 대략 아래의 지도와 같이 추측된다.



3. ㉠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2절)

- ㉠ (1)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로 귀환한 (대하 36:22, 23)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
- (2)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으나(스 6:15) 성벽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스 4: 12, 13, 21, 23).
- (3)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벽 건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 (4) 이러한 성벽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렘33:14).

4. ㉠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 중에 담당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1-32절)

- ㉠ (1)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 중에서 어떤 특정한 몫을 담당했다는 본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 그런데 다윗의 묘실을 마주한 성벽부터 용사의 집 앞 성벽까지 중건한 느헤미야(16절)는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와는 다른 사람이다.
- (3) 한편 느헤미야가 어떤 특정한 성벽 일부를 중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하였다. 곧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지휘하였다(1: 8, 18).

5. ㉠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라(1-32절).

- ㉠ (1) 그들의 이름과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자파, 지역)	직위	이름의 뜻
엘리아십 삭굴	레위, 예수아의 손자 여리고, 이므리(아마라)의 아들	대제사장 여리고인의 지도자	하나님이 회복하심 기억하다
하스나아의 후손들 므레못	하스나아(스나아, 스 2:35) 레위,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제사장(10:5)	미워하다 높아지다
므솔람 사독 (사두개, 여호사답)	베레가의 아들, 예루살렘 바야나의 아들(7:7, 10, 27; 스 2:2)	귀족	보상 의롭다
요야다 (여호야다)	바세아의 아들(스 2:49)		하나님이 아셨다
므솔람 블라다	브소드야의 아들 목공 보상 기브온	유력한 지도자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심
야돈 웃시엘 하나나	메로봇 할해야의 아들	금 세공업자 향품 장사	가늘다 하나님은 능력 여호와는 은혜로 우시다
르바야	후르의 아들	예루살렘 성 결반을 다스리는 자	여호와께서 치료 해 주셨다
여다야	허무람의 아들,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아신다

햇	두	스	하삼느아의 아들, 다윗의 후손(스 8:2)			알 수 없음
말	기	야	하림의 아들(7:35, 42)			여호와와 나의 왕 이시다
햇		술	레위, 바핫모압의 아들	제 사 장		여호와께서 인정 하심
살		롬	할로헤스의 아들(10:24) 사노아 절반을 다스리는 자	예루살렘 성		보상한다
하		눈				은혜롭다
(하 나 니 아, 하 나 니 엘)						
말	기	야	레갑의 아들	벧학게렘 지방 통치자		여호와와 나의 왕 이시다
살		문	골호세의 아들	미스바 지방 통치자		보상한다
느	헤	야	아스북의 아들	벧술 지방 절반의 통치자		여호와께서 위로 하신다
르		홀	레위, 바니의 아들			궁홀로 등장
하	사	바	레위	그일라 지방 절반의 통치자		여호와께서 인정 하심
바		왜	레위, 헤나닷의 아들	〃		알 수 없음
에		셀	레위, 예수아의 아들(후손, 스 2:40)	미스바 통치자		도움
바		룩	레위, 삼배의 아들			복됨
베	나	민	레위, 하림의 후손(스 10:32)	제 사 장		오른손의 아들
아	사	락	레위,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여호와의 도움
빈	누	이	헤나닷의 아들			여호와께서 만드심
발		랄	우새의 아들			여호와께서 주관 하시다
브	다	야	바로스(스)의 아들			여호와께서 대속 하시다
스	마	야	레위, 스가나의 아들	동문지기		여호와께서 들으 셧다
사		독	레위, 임멜의 아들			의롭다
하	나	나	셀레마의 아들			여호와와 은혜롭다
하		눈	살람의 여섯째 아들			은혜를 받았다
므	술	람	베레가의 아들			보 상
말	기	야		금 세공업자		여호와와 나의 왕 이시다

6. ㉠ 양문(羊門)을 건축한 자들은 누구인가? (1절)

㉡ (1) 북쪽 양문을 건축한 자들은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었다.

- (2) 여기서 엘리아십은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예수아의 손자요, 요아김의 아들인데 느헤미야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12:10).
- (3) 그는 느헤미야의 성곽 재건에 협조했지만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도비야(2:19)와 친근한 사이였다(13:4). 그리하여 그는 느헤미야와 나중에 좋지 않게 되었다(참조, 13:28, 29).
- (4)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실을 맨 처음에 기록함으로써 이 성벽 건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7. **㉠ 양문은 어디에 있었던 문인가? (1절)**

- ㉡** (1)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함메아 망대 가까이 있던 문으로서 이 문을 통해 성전에서 제물로 쓸 제물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
- (2) 또한 이 양문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못 가까이에 있었던 문이다(요 5:2-9).
- (3) 한편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요 10:7)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8. **㉠ 양문에서부터 어문앞까지 성벽을 건축한 자들은 누구인가? (1-3절)**

- ㉡** (1) 양문과 그 옆으로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제사장들이 재건하였다.
- (2) 거기서부터 어문까지는 삭굴의 지도하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 (3) 여기서 하나넬 망대의 건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렘 31:38)의 성취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당신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참으로 믿어야 할 말씀이다(잠 30:5).

9. **㉠ 어문(魚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3절)**

- ㉡** (1)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한 어문은 예루살렘 성의 서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12:39; 대하 33:14).
- (2) 그런데 어문이라는 이름은 이 문 가까이에 어물전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다(13:16).

10. **㉠ 느헤미야는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가? (5절)**

- ㉡** (1) 느헤미야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었던 드고아(암 1:1)의 민중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드고아의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 (2) 즉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힘없고 연약한 민중들이 아니라 권세 있고 부유한 귀족들로서 그 일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자들이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하여야 한다(딤후 6:17-19).

11. **㉠ 옛 문에서부터 골짜기 문앞까지 건축한 자들은 누구인가? (6-12절)**

- ㉡** (1)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건축하였다(6절).
- (2) 그 다음의 성벽은 서로 지방이 달랐지만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의 협력으로 건축되었다(7절).
- (3) 그 다음은 금 세공업자들과 향품을 파는 상인들도 참여하였고, 고위층 관리인 르바야도 참여했다(9절).
- (4) 그리고 풀무 망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대하 26:9)인데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숨이 중수하였다(11절).

(5) 더구나 여인들도 그 다음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살룸의 딸들이었다(12절).

(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빈부와 지위의 고하, 남녀와,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참조, 롬 12:4-8).

12. **㉠** 옛 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6절)

- ㉠** (1) 옛 문은 어문과 넓은 성벽 사이 곧 예루살렘 성 북쪽 모퉁이에 있었던 문이다(왕하 14:13). 스가라는 이 문을 처음 문이라고 했다(속 14:10).
 (2) 이 문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으나 가장 먼저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3) 여하튼 이 문은 지리상, 전략상, 경제상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문이었다.

13. **㉠** 넓은 성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8절)

- ㉠** (1) 넓은 성벽은 옛 문과 풀무 땅대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12:38) 이 성벽은 특별히 넓고 견고하며 전략상으로 요긴한 곳이었다.
 (2) 이 부분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를 칠 때에 무너졌는데 그 길이가 약 2km 정도 되었다(왕하 14:13).

14. **㉠**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13, 15절)

- ㉠** (1) 이 말은 당시 공사를 맡은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중도에 쉬지 않고 완료했던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6:15).
 (2) 왜냐하면 건축 순서상 문짝은 건축물을 완성하고 난 후 마지막에 다는 것이며, 자물쇠와 빗장 역시 마지막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사실 누구나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완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현실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빌 1:6; 딤후 2:14).

15. **㉠** 샘문 이후부터 군기고(軍器庫) 맞은편까지 건축한 자들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16-19절)

- ㉠** (1) 이 부분에서는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거듭하여 나온다.
 (2) 이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거하던(스 2:1)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적인 인물들로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모두 참여하였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자들은 솔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16. **㉠** 군기고(軍器庫) 이후부터 성 굽이 맞은편까지 건축한 사실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20-24절)

- ㉠** (1) 본문에는 '한 부분'이란 말이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20, 21, 24절) 이것은 그 당시 각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영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했음을 가리킨다.
 (2) 또한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 실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서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고전 4:2).

17. **㉠** 성 모퉁이 누(樓)에서 양문까지는 성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32절)

- ㉠** (1) 금 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성 모퉁이 누(樓)에서부터 양문까지의 부분을 다시 세웠다.

- (2) 그런데 이 부분은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던 양문에서 다시 양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의 전체 성벽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었다.
- (3)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는 마치게 되었는데 그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벽은 제구실을 하게 되었다.

18. **㉠**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32절)

- ㉡** (1) 예루살렘 성은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왕하 24:8-10) 전체가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 (2)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은 성읍을 방어하는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수(重修)되어야 했으며 그 후에야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생명이 (롬 3:23; 6:2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한다.

화보자료

예루살렘 성벽. 아래의 사진은 중세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으로서 성벽 위에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과 관광객의 모습이 보인다.



성벽을 중수(重修)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계층인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즉 제사장들(1절), 금장색 향품 장사들(8절) 및 여자들(12절), 레위 사람(17절), 상고들(32절) 등 모든 백성의 협력과 참여가 있었던 것이다.

제 4장 대적들의 궤계와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비

단락구분 1-6 대적들의 조롱과 느헤미야의 기도 / 7-14 대적들의 악한 궤계와 그에 대한 대응 / 15-23 싸움에 대비한 준비와 성벽 건축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들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엄신 여감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 하였음이니라
7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 다 함께 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처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면즉
20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이제 성벽 건축의 책임이 백성들에게 할당되었고 그 공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2) 그러나 대적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방해로 놓았다.
 (3) 그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며 격려했다. 그리하여 대적들의 음모는 와해되었고 성벽 건축 역사(役事)는 철저한 경계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궤계를 꾸미는 불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 중단없는 성실로 그것을 성취시켜야 할 것이다(벤전 5:8, 9).

2. **Q** 산발랏은 당시 유대인들이 진행시키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1, 2절)

- A** (1) 산발랏은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였다.
 (2) 왜냐하면 심하게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심히 미약한 형편에 있었으므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3) 그러나 이러한 산발랏의 태도를 볼 때 그는 외형적인 것만을 볼 수 있었지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었다.
 (4)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미약하게 진행되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마 28:18-20).

3. **Q** 산발랏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A** (1) 산발랏은 모압 지방의 호른 사람으로 당시 바사 제국 통치하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증흥은 그의 세력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2:10).
 (2) 그러나 산발랏은 당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후원을 얻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1:8, 9).
 (3) 그러므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 혼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항하여 분을 내는 악한 세력의 모습을 본다. 과연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분을 내며 대적한다(시 2:1, 2).

4. **Q** 산발랏이 당시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2절)

- A** (1)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사마리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왕하 17:5) 앗수르의 에살하돈(Esarhaddon, B.C. 682-669) 왕에 의해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왕하 17:24; 스 4:2)과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혼혈 족속이었다.
 (3) 이들은 형식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스 4:2)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혼합 종교였다(왕하 17:27-33).
 (4)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얻을 수 없고(2:20)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다(참조, 고후 11:14, 15).

5. **Q**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을 듣고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4, 5절)

- A** (1)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비웃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2)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참조, 1:4-11;2:4;5:19;6:9, 14;13:14, 29).

(3) 그러므로 성도들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빌 4:6).

6. **㉠**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조롱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4, 5절)

- ㉠** (1)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난을 대적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 대적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말라고 기도하였다.
- (2)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조롱하고 꺾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 5:44)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는다.
- (3)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이다(시 149:6-9).

7. **㉠** 유대인들은 대적들이 조롱할 때에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가? (6절)

- ㉠** (1)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
- (2) 그리하여 끊겨졌던 성벽들이 모두 연결되었고 그 높이는 계획한 높이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 (3) 이러한 것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되어져야지 억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 9:7).

8. **㉠** 예루살렘 성이 중수(重修)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자들은 누구인가? (7절)

- ㉠** (1) 그들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들이었다.
- (2)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이,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블레셋)들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사면 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였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다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후 4:8).

9. **㉠**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당면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7-14절)

- ㉠** (1) 먼저 외부적인 것으로서 사방의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계계를 세웠다(8, 11절).
- (2) 그런데 성벽 건축에 종사하던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외적의 위협에 대한 자기들의 연합함을 한탄하며 낙심에 빠졌다(10절).
- (3) 또한 대적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둬해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느헤미야에게 요청하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팎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참조, 고후 7:5).

10. **㉠**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계계에 대해 어떤 태도로 방비하였는가? (9절)

- ㉠** (1) 느헤미야는 비록 사방의 대적들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 (2)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파숫군을 두어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방비하였다.
- (3) 이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그 어려운 일을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신앙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포함한다.

11. **㉠** 대적들의 체계가 폐하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유다를 둘러싼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은 유다인들의 긴밀한 연락으로 거사(擧事) 전에 누설되었다.
 (2) 또한 이러한 대적들의 체계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고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토록 만들었다.
 (3) 그러나 이러한 유다인들의 방어 태세 자체가 그 대적들의 체계를 폐하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적들은 군사적으로 유다인들에 비해 막강하였기 때문이다(2절).
 (4) 따라서 대적들의 체계는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므로 폐하여진 것이다(15절).
 (5)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참조, 잠 19:21).

12. **㉠** 느헤미야가 대적의 꾀를 폐한 후에도 계속 방비 태세를 갖춘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5-20절)

- ㉠** (1) 느헤미야는 싸움에서의 승리가 자기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다(9, 14절).
 (2)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무장시킨 후 각 지역으로 흩어서 대적들의 침입을 방지하였고(12-14절),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무장시키면서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15-18절).
 (3)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참조, 시 37:3).

13. **㉠** '내 종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여기서 '종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르>인데, '활동적인 소년' 또는 '활동적인 청년'을 가리킨다(참조, 출 24:5; 33:11).
 (2) 그러므로 '내 종자'는 당시의 느헤미야를 추종했던 유다 청년들의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들은 다른 유다 백성들과 구별되는 자들로서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경비하였고 다른 한 대는 성벽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써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마 16:24).

14. **㉠**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표현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가? (17절)

- ㉠** (1)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두 손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말은 당시에 일하던 백성들이 모두 동등하게 이 두가지 일을 해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3) 아마도 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일을 교대함으로써 지루함을 방지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병기를 잡고 있는 동안 편할 수는 있었지만 방비하는 일에 충실하였다.
 (4) 이와 같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주의 일에 진력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시 133:1).

15. **㉠** 당시 유다인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열심이 있었는가? (21절)

- Ⓐ (1) 당시 성벽 재건에 힘쓰던 자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할 정도로 열심이 있었다.
- (2) 물론 그들의 하는 일이 오래도록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하루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
- (3)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길지 못하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롬 12:11).
16. ⓐ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느꼈던 긴장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23절)
- Ⓐ (1) 당시에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수면을 편안하게 취하지 않고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 (2) 또한 그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물을 길으러 갈 때에 병기를 휴대할 정도로 긴장하며 생활하였다.
- (3) 이러한 긴장감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벧전 5:8).

연구자료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 '산발랏'(Sanballat)이란 이름은 '달신(月神)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인 바벨론어 <신 우발리트>에서 유래된 것이다. 2:10에 '호론(Horon)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 지역인 '벧호론'(Beth-horon)에서 출생한 듯하다(참조, 수 10:10). 13:28에는 그의 딸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Joiada)의 한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시대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Tobiah) 및 아라비아 사람 게셈(Geshem) 등과 더불어 느헤미야를 대적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7, 8절). 이처럼 그가 느헤미야를 적대시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에 대한 산발랏 자신의 통치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던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하였다(6:2).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하자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역모죄(逆謀罪)를 씌워 그를 처단하려 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그러한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6:5-9). 한편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그리심산(Gerizim Mount)의 사마리아 성전은 이 산발랏이 만든 것으로서 산발랏은 자기의 사위인 므낫세를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성 여부는 분명치 않다.

제 5장 사회적 불의(不義)의 타파

단락구분 : 1-5 유다 민중들의 절규(絶叫) / 6-13 느헤미야의 책망과 백성들의 호응 / 14-19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느헤미야의 통치와 기도

1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자람을 원망하는데

2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4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7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자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8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11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재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13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라도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14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부터 삼십 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16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17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일백 오십 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18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 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증함이니라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 ㉠ 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느헤미야는 과중한 이자와 세금 등을 부담하면서 곤핍하게 된 가난한 민중들의 원성(怨聲)을 듣고 그들에게 폭리를 취한 부유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이것은 지금까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느헤미야가 그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건이었다.

(3)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 다른 민족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안에서 정의와 질서를 이룩하여 모든 단체와 인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Q** 본장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되고 있는가? (1-19절)

A (1) 본장은 성벽 건축 공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기술되고 있다(참조, 1, 18절; 6:15).

(2) 그런데 이때 백성들 모두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순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3) 즉 외부적인 위협(4장)이 계속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자멸 요인인 내부에서의 부패와 불의가 있었다(5, 8절).

(4)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에서 진행될 때 환상이나 꿈속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갈등과 환난이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행 14:22).

3. **Q** 백성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절)

A (1)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가정의 아내들까지 합세하여 전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였다.

(2) 그런데 당시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계속되었던 것으로서(참조, 학 1:4-6)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참조, 말 3:5).

(3) 그러나 이제 공의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다스리자(14-19절) 가난한 자들의 소리가 크게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다(잠 21:12).

4. **Q**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취급하였는가? (1절)

A (1) 느헤미야는 본장에서 백성들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이러한 묘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실 묘사다. 즉 단순히 착취하는 자를 ‘형제’라고 묘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느헤미야는 본장의 문제를 단순한 사회의 불의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언약의 공동체(共同体) 속의 문제라는 안목으로 봄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였다.

(4) 오늘날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참조, 히 3:1).

5. **Q** 원망하는 자들은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가? (2-4절)

A (1) 당시에 원망하던 자들은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다.

(2) 첫째 부류는 재산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로서 그들은 많은 자녀들과 함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2절).

(3) 둘째 부류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고 살 양식을 위해 그것들을 저당 잡혔던 자들이다(3절).

(4) 세째 부류는 바사 왕에 의해 부과된 세금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물을 팔고 빚을 낸 자들로서 그 이자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었다(4절).

6. **Q** 당시의 가난한 자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는가? (5절)

A (1) 당시 가난한 자들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양식을 구걸하고,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낼 정도

(2-4절)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 그리고 그 당시 벌써 딸을 자신의 종으로 판 자도 있었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소유가 된 자들도 있었다.

(3) 게다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레 25:13-55).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속에 극한 불의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

7. **㉠**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성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6,7절)

㉠ (1)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성을 경청하고서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다.

(2) 또한 그는 사태를 잘 생각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7절)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백성들의 대회를 열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을 책망하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변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시 7:11; 롬 12:21).

8. **㉠** 당시 귀인과 민장들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책망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7절)

㉠ (1)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꾸어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같은 언약의 백성인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했다(신 23:19, 20; 24:10-13). 그러나 그들은 동족에게 이자를 취했다(7절).

(2) 또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채권자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비롭게 행하여야 했다(출 22:25-27; 레 25:35-37). 그러나 그들은 자비롭게 행하기는 커녕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8절).

(3) 한편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이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힘써야 한다(골 1:22, 23).

9. **㉠** 느헤미야가 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무엇인가? (7절)

㉠ (1)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

(2) 즉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책망을 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의 원성을 전체 백성들이 다 공감하며 그들의 불의를 스스로 제거하게 하여 언약의 백성된 참 뜻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3) 이와 같이 몇몇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그 죄악을 공동체 전체가 절감하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참조, 잠 6:23).

10. **㉠**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귀인과 민장들을 책망하였는가? (8절)

㉠ (1)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책망할 때 먼저 자기가 해 온 일을 말하고 다음에 그들의 악한 소위(所爲)를 지적하였다.

(2) 즉 느헤미야와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모아 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귀인들과 민장들은 오히려 동족을 종으로 팔려가게 할만큼 수탈(收奪)하였다.

(3)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수와 같이 대적하기 보다는 언약의 백성으로 일체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였다.

(4) 이러한 느헤미야의 사랑어린 책망은 그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악한 형제를 책망할 때 슬기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한다.

11. **㉠** 느헤미야는 이제 어떠한 내용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가? (9-11절)

- Ⓐ (1)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했다(9절).
- (2)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제 율법을 따라 이자받기를 그치자고 말했다(10절).
- (3) 또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당시 저당잡고 있었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이자로 받은 돈, 곡식, 새 포도주나 기름을 동족들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다(11절).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여야 한다(참조, 고후 13:7).

12. ㉠ 귀인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2절)

- Ⓐ (1) 귀인들과 민장들은 충실하게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8절)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 (2)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난한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덜게 되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선한 통치와 실천적인 삶의 영향으로 불의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선한 생각과 행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 느헤미야는 누구를 통해 귀인들과 민장들을 맹세시켰는가? (12절)

- Ⓐ (1) 느헤미야는 상당히 실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말로 만족치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 그들이 행할 것을 맹세케 하였다.
- (2)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제사장 앞에서 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같았다(참조, 13:15).
- (3)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케 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들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로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이고 맹세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마 5:23).

14. ㉠ 느헤미야가 계속하여 경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 Ⓐ (1)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제사장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케 한 후에 그들이 맹세한 것을 행치 않는 자는 언약의 기업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였다.
- (2)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수 11:28, 29).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행해야 하며 또 일단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참조, 시 15:4).

15. ㉠ 느헤미야의 말에 대한 전체 백성의 호응은 어떠하였는가? (13절)

- Ⓐ (1) 백성들은 모두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그 후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 (2)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참조, 2:18; 4:6).
- (3) 즉 폐허화 된 성벽과 같이 백성들의 신앙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었으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제 그들 안에 내재해 있던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4) 이렇게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자라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울 때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의뢰하여야 한다(참조, 히 3:14).

16. ㉠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인 사실을 이제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물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다로 부임하였다(참조, 2:9-11).
- (2)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와서야 자기가 총독인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3)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 중의 한 사람처럼 일해 온 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겸허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싫어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 한다(참조, 고전 10:31).

17. **㉠**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는 앞서 통치한 총독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14, 15절)

- ㉠** (1) 당시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속국들을 다스리던 총독들은 대부분 민중들을 압제하고 민중들에게서 많은 것을 탈취하였다(15절).
- (2)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이었지만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막대한 녹(祿)도 받지 않고 그를 시종드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였으며(14절) 더구나 토색(討索)한 일은 전혀 없었다(15절).
- (3) 이러한 느헤미야의 외부적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다(15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을 통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약 2:26).

18. **㉠**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16-18절)

- ㉠** (1)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1:3, 5).
- (2) 느헤미야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솔하였으며 자신은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버리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열심히 일하였다(16절).
- (3) 즉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도 사양하고 최소한도로 절약하면서 짐을 지우지 않고 백성들의 힘든 일들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했다(18절).
- (4)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서로 도와야 한다(갈 6:2).

19. **㉠** 당시 이방인들이 느헤미야의 상에 있었던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17절)

- ㉠** (1)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착착 진행되자(4, 7절) 주변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성벽이 재건되는 광경을 보려 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언약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던(1:3)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나타내 준다.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높이 세우셔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 **㉠**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19절)

- ㉠** (1)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사리 사욕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 (2)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3)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고 그런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다.
- (4)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신이 진행시킨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 (5)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롬 14:7, 8).

연구자료

세금에 대하여

본장에는 과중한 세금 때문에 시달린 유대 백성들의 절규를(1-5절) 들은 느헤미야가 불공평한 세금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귀족과 관리들을 비난하면서(7-11절) 자신은 동족을 위해 이를 거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14-18절). 그래서 이 기회에 본고는 성경에 나타난 세금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세금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원래 세금은 지방이나 정부, 국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세금 제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활동하던 족장 시대(族長時代)에는 어느 정도 조직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요셉이 장기간의 흉년에 대비할 목적으로 애굽 전지역의 소산물(所産物)의 5분의 1을 징수한 것이 그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 41:25-42:5). 그러나 출애굽(Exodus)과 가나안 입주(入住) 이후 사사 시대(士師時代)까지도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자체적인 징세 제도나 수납 기관이 없었다. 다윗 시대에는 전리품과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받는 조공으로 국고(國庫)를 유지하였다(참조, 삼하 8장; 대상 27:25-31).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국세(國稅)를 만들어낸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다. 그는 성전과 궁전 건축을 위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고, 열 두 관장(官長)을 두어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도록 했다(왕상 4:7). 이외에 또 다른 세금 제도로서 상인과 객상(客商)들에게 거두는 통행세, 외국에 의존하는 조세와 공물들이 있었다(왕상 10:14-29; 대하 9:13-28).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에는 외국의 군주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가운데 바사(Persia) 치하에서의 세금법은 지방 출신의 관리 책임 아래 두었던 종전의 징수 방법과는 달리 각 지역의 속주(屬州)로 파견된 바사 출신 총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세금 종류는 왕실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조공과 잡세와 부세(賦稅)'가 있었고(스 4:13)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에게는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스 7:24). 또한 '총독의 녹(綠)'이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식량과 포도주와 매일은 40세겔을 바치는 것이었다(14, 15절). 후에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농작물과 매매되는 모든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했다. 로마 제국 통치기의 유대인들에게는 4, 5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현물이나 돈으로 내는 토지세, 인두세와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마 22:17), 항구와 성문에서 거두는 출입세, 예루살렘내의 가옥세 등이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야구스도(Caesar Augustus, B. C. 23-A. D. 14)는 조세를 위해 로마 속국의 전지역에 호적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눅 2:1). 그러나 이와

같은 이방 세력에게 바치는 세금 외에도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 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했다(마 17:24). 이 일에 종사하는 유대인 출신의 관리를 세리(稅吏)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무소도 세워졌다. 로마의 압제 상황 아래서의 세리들의 활동은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뒤 착복하여 부(富)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마 9:10; 11:19; 21:31; 막 2:15, 16; 눅 5:30). 신약 성경 가운데 공관복음서에는 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화 장면이 나온다(참조, 마 22:15-22). 물론 유대인들이 유독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이 문제가 당시의 신앙과 정치상의 미묘한 관계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렇다고 예수 상태에서 납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과의 불화와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세속 군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 대한 신앙적 의무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마 22:22). 한편 사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초대 교회가 설립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통치 질서와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그들의 고민이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주장은 거의 일관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善)과 악(惡)에 대한 징벌의 대행자로서 세속 통치자와 관리를 세우셨고 여러 종류의 제도와 법규들을 설정하셨는데 세금 제도는 이러한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롬 13:1-7; 벧전 2:13). 이러한 사도적 권면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려 할 때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사도들의 권면에는 세속 정부나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통치자가 악을 행할 경우의(때) 대응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그러므로 납세 제도가 부의 균등한 분배 원칙에서 벗어났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언과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세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웃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네째,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자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완료되다

단락구분 1-9 대적들의 유혹과 위협 / 10-14 대적과 거짓 선지자들의 음모 / 15-16 성벽 건축 완료 / 17-19 도비아의 위협

1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3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내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

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울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 성 역사가 오십 이 일 만에 엘룰월 이십 일에 끝나매

16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17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18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한단도 베테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19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할때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제 성벽 건축 공사는 백성들 사이에 있던 불의를 제거함으로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대적들의 유혹과 위협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 (2) 그리하여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의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하였다.
- (3) 그러나 이런 음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서서 성벽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국

시작한 지 52일 만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이처럼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과 위협이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곳곳하게 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참조, 요 16:33).

2. **㉠** 본장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1절)

㉠ (1) 본장은 성벽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기만 하면 성벽 공사가 완료될 때를 배경으로 한다.

(2) 그러나 이런 모든 성벽 공사의 진행 사항은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보고되어졌으므로 대적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3)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어갈 때일수록 대적들의 방해는 더 극심하여진다.

(4)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쳐야 한다(참조, 히 3:12-14).

3. **㉠**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첫번째 음모자들은 누구인가? (2절)

㉠ (1)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

(2)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이며 블레셋, 유다, 사마리아가 서로 교차되는 중립 지대인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3) 그러나 그들이 협상하자는 것은 그들의 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암살하거나 예루살렘을 습격하려는 음모였다.

(4) 이렇게 대적들이 성도들을 해치려 꾸미는 꾀계 가운데서 '타협하자'는 꾀계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올무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불의에 타협하자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피흘리기까지 불의와 싸우는 전투적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히 12:4).

4. **㉠** 느헤미야는 이런 악한 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3절)

㉠ (1)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협상 제안이 내포하고 있는 음모를 잘 파악하고서 (2절)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2) 그런데 당시의 성벽 건축은 유다인들에게 힘에 부치는 큰 역사(役事)이었으므로 느헤미야가 만약 그의 자리를 비우면 성벽 공사는 중지될 것이 분명했다.

(3)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기가 맡은 사명의 중차대함 때문에 대적들의 협상 제안을 거절하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은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참조, 행 20:28-35).

5. **㉠** 대적들의 꾀계는 몇 번이나 계속되었는가? (4, 5절)

㉠ (1) 대적들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섯 번이나 계속되었다(5절).

(2)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대적들의 꾀계가 끈덕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두 번 마귀의 대적을 물리친 것에 기뻐하지 말고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전 10:12).

6. **㉠** 산발랏이 다섯번째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5-7절)

㉠ (1) 네 번씩이나 실패한 원수들은 마지막으로 지독한 방법을 썼다. 즉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보내서 누구나 다 보게 하여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하였다(참조, 2:19).

(2) 그것은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소문을 듣고서 당황하여 느헤미야를 불신하고 대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했다.

- (3) 이와 같이 악한 대적들은 거짓 꾀계로써 성도들을 위협하여 자기들에게 굴복케 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적들의 거짓된 위협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 자기가 맡은 사명을 계속 수행해 가야 한다(참조, 갈5:1).

7. **㉠**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무슨 일을 하였다고 모함했는가? (7절)

- ㉠** (1) 느헤미야가 선지자까지 세워 자신이 유다의 왕임을 선전하도록 하였다고 산발랏은 모함하였다.
- (2)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목격하고서 느헤미야가 혹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야가 아닌가 하고 은근히 기대를 가지는 자가 있을 수 있었다(참조, 사41:8-16).
- (3) 그리고 산발랏과 그 대적들은 이미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자'(2:10)로 알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들의 모함은 거짓말이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품고 있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8. **㉠**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8, 9절)

- ㉠** (1)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유혹과 위협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음모는 순전히 대적들이 꾸며낸 것이요 그들의 불안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꾀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힘을 잃고서 성벽 건축이 지연될 수도 있었다.
- (4)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대적들의 꾀계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벽 공사를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였다.
- (4)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이다(참조, 시18:1-3).

9. **㉠** 대적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를 어떻게 유혹하였는가? (10-14절)

- ㉠** (1) 대적들은 자신들의 유혹과 위협이 실패로 끝나자 유다인 중의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유혹하려고 하였다.
- (2) 즉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살해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파멸시키려 하였다.
- (3)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꾀계는 악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꾸며서 신앙인을 망하게 하려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이었다.
- (4) 오늘날도 악한 세력들은 이런 수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한다(고후 11:14, 15).

10. **㉠**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

- ㉠** (1) 스마야는 유다 사람으로 들라야의 아들이요, 므헤다벨의 손자였다.
- (2) 또한 그는 산발랏과 도비아에 의해 느헤미야를 파멸시키려고 고용된 거짓 예언자들 중의 하나였다.

11. **㉠** 스마야가 두문 불출(杜門不出)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10절)

- ㉠** (1) 스마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파멸시키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거짓 예언을 하고자 했다.
- (2)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위는 느헤미야가 앞으로 갈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 (3) 이처럼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흔히 있었으며(참조, 왕상 22:11, 12; 렘 28:10; 행 21:11)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이나 선지자를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요일 4:1).

12. **㉠**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어디로 피신토록 유혹했는가? (10절)

- A** (1)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외소(外所)로 피하라고 유혹하였다.
 (2)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세워진 제 2차 성전이었고(참조, 스3:2;6:14), 외소(外所)는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위치한 부분이었다.
 (3) 그리고 이 외소(外所)는 성전의 구조상 지성소, 성소와 함께 성전에서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벽과 문들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어졌으므로 사람의 몸을 피신하기에 안전한 곳이었다.

13. **Q**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꾀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가? (11절)

- A** (1)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전의 외소(外所)에 피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마야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그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기 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벽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중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 결국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꾀계를 피하였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 주신다.

14. **Q**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신(避身)하지 않으려 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A** (1)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평소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참조, 민 18:7).
 (2)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었으므로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성전 안으로 피신할 수는 없었다.
 (3) 여기서 우리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본다.
 (4)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는 자는 악한 꾀계를 능히 피할 수 있게 된다.(참조, 엡 6:11, 17).

15. **Q** 느헤미야가 이런 유혹을 물리친 후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12절)

- A** (1)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로서 대적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마야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는 중에 깨달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참조, 출 23:22).

16. **Q** 산발랏과 도비야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며 거짓 예언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3절)

- A** (1) 산발랏과 도비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며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었다.
 (2) 첫째는 느헤미야를 거짓 예언으로 두렵게 만들어 성전으로 피하는 죄악을 범하게 하여 느헤미야에게 향해 있던 유대인들의 기대를 부수어 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3) 또한 두번째는 유대인들 사이를 이간함으로써 유대인들 스스로 자멸케 하려는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은 교묘한 꾀계를 꾸미기 마련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교묘한 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날센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막 13:22, 23).

17. **Q**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14절)

- A** (1) 여선지 노아다와 그 당시 선지자라고 자처하던 자들이었다.
 (2)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3) 그러나 그들은 느헤미야를 몰아내려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현혹시켰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 (4) 성도들은 오늘날도 이들과 같이 '나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미혹한 길로 이끄는 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주의해야 한다(참조, 마7:15).

18. **Q** 성벽 재건 공사는 얼마 만에 끝났는가? (15절)

- A** (1) 성벽 재건 공사는 내·외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났다(15절).
- (2) 이러한 대역사(大役事)가 당시 미약할 대로 미약해진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참조, 4:2, 3, 10).
- (3) 이것은 미약한 유다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 (4)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시127:1).
- (5)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굳게 세워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

19. **Q** 유다인들의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A** (1)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왜냐하면 유다의 강성함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대적들은 두려워 낙심에 빠지게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적들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마10:28, 31-33).

20. **Q** 성벽 건축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유다의 귀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17-19절)

- A** (1)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유다의 원수인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혔다.
- (2)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도비야의 일가와 통혼한 처지였고(18절) 대적 도비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모해하며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참조, 7절).
- (3) 이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세를 사용하여 응징하기 보다 참고 관용하며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모든 백성이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참조, 5:8).
- (4) 이와 같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징벌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비록 반대하고 내분을 도모하는 자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관용해야 한다.
- (5)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엡4:1-3).

21. **Q** 느헤미야가 당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유다 내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18절)

- A** (1) 그것은 유다 내의 지도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지내는 일이었다.
- (2) 이렇게 대적들과 내통하는 무리들은 스가냐와 베레가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았다.
- (3) 그런데 이런 일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일체성을 깊이 느끼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에게는 큰 문제거리였음에 틀림없다.
- (4) 이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굴복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요16:33).

제 7 장 바벨론에서 일차로 귀국한 백성들의 계보

단락구분 1-4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우다 / 5-65 바벨론에서 일차로 귀국한 자들의 계보 / 66-69 돌아온 자들의 총수(總數)와 그들의 재산 / 70-72 그들이 바친 금품과 물품 / 73 맺는 말

1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 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5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라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제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제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이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훤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8 바로스 자손이 이천 일백 칠십 이 명이요

9 스바다 자손이 삼백 칠십 이 명이요

10 아라 자손이 육백 오십 이 명이요

11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 팔백 십 팔 명이요

12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 명이요

13 샷두 자손이 팔백 사십 오 명이요

14 삭개 자손이 칠백 육십 명이요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 사십 팔 명이요

16 브배 자손이 육백 이십 팔 명이요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 삼백 이십 이 명이요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 육십 칠 명이요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 육십 칠 명이요

20 아딘자손이 육백 오십 오 명이요

21 아델 자손 곧 허스기야 자손이 구십 팔 명이요

22 하숨 자손이 삼백 이십 팔 명이요

23 베새 자손이 삼백 이십 사 명이요

24 하림 자손이 일백 십 이 명이요

25 기브온 사람이 구십 오 명이요

26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일백 팔십 팔 명이요

27 아나돗 사람이 일백 이십 팔 명이요

28 벨아스마뻬 사람이 사십 이 명이요

29 기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뫼 사람이 칠백 사십 삼 명이요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 이십 일 명이요

31 므마스 사람이 일백 이십 이 명이요

32 벨엘과 아이 사람이 일백 이십 삼 명이요

33 기타 느보 사람이 오십 이 명이요

34 기타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 명이요

35 하림 자손이 삼백 이십 명이요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 사십 오 명이요

37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칠백 이십 일 명이요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 구백 삼십 명이었느니라

39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 칠십 삼 명이요

40 임멜 자손이 일천 오십 이 명이요

41 바스훌 자손이 일천 이백 사십 칠 명이요

42 하림 자손이 일천 십 칠 명이었느니라

43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 사 명이요

44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일백 사십 팔 명이요

45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엘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일백 삼십 팔 명이었느니라

46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웃 자손과

47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48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49 하난 자손과 깃헬 자손과 가할 자손과

50 르야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51 갓삼 자손과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52 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
 손과
 53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4 바솔렛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
 손과
 55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6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57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
 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58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59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
 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이 삼백 구십 이 명이었느니라
 61 펠렐라와 펠하르사와 그함과 앓돈과 임멜
 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
 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 사십 이 명ियो
 63 제사장 중에는 호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
 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
 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64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

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
 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65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들땀을 가
 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
 라 하였느니라
 66 은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
 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 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 오 명이요
 68 말이 칠백 삼십 목이요 노새가 이백 사십
 오요
 69 약대가 삼백 사십 오요 나귀가 육천 칠백
 이십이었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일천 다릭과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 삼십 벌을 보물 공간에 드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이백 마네를 역사 공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 칠 벌을 드렸느
 니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
 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은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
 느니라

1. ㉠ 본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要旨)는 무엇인가?

- ㉠ (1)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 자기 동생 하나니와 충성된 사람 하나니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성을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2)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건 설된 도성(참조, 왕상 11:36; 렘 3:17; 33:10, 16)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인구 조사를 하려 했다.
 (3) 그러던 중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세 하게 살펴보았다.
 (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신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자기의 할 일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참조, 고후 9:5).

2. ㉠ 본장은 어떠한 때를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는가? (1-4절)

- ㉠ (1) 본장은 성벽 중건 공사가 고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료된 후 성벽 경비에 종사 할 사람들을 세운 때를 배경으로 서술되었다.
 (2)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었는데 이제 성벽이 중건되므로 그 외형 적인 것들은 다 갖추어졌다.
 (3) 그러나 느헤미야의 할 일은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강 하게 하고 번영케 하는 일이 또한 남아 있었다.
 (4)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가운데 힘써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한 후 에는 자만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5)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완성한 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 4:2; 딤후전 3:11).

3.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경비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1-4절)

- ㉠**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레위인들 중에 문지기(참조, 11:19)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성문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벽을 파수토록 했다(3절)
 (2)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 중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4절; 11:1, 2).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비록 그 힘이 미약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참조, 계 3:8).

4. **㉠**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님에게 맡긴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2, 3절)

- ㉠** (1) 느헤미야는 아우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무리에서 뛰어난 영문의 관원 하나님을 지명하여 예루살렘 성 수비하는 일을 맡겼다.
 (2)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성문을 단속하는 일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조직하여 성을 잘 파수할 것을 명하였다.
 (3) 이러한 방비는 당시 이웃한 대적들의 위협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영광(참조, 왕상 11:36; 렘 13:17; 33:10, 16)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기업을 잘 방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영(經營)하여야 한다.

5. **㉠**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자들은 얼마나 되었는가? (4절)

- ㉠** (1) 당시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지만 그 안에 거하는 주민은 매우 적었다.
 (2) 이것은 당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생활과 행복에 연연했던 것을 나타낸다(참조, 학 1:4, 5).
 (3)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이방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다(참조, 2:17).
 (4)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의 제일 목표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참조, 고전 10:31).
 (5)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義)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6:33).

6. **㉠**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그 보계(譜系)대로 계수하게 되었는가? (5절)

- ㉠** (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방도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므로 백성들을 그 보계대로 계수하게 되었다.
 (2)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할 수 있었고 후에 실질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참조, 8:1-3; 9:1; 11:3-36).
 (3)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 책략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였다.
 (4)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의 책략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용할 때가 많다.
 (5) 그러나 우리들은 좀 어렵더라도, 혹시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도(方途)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7. **㉠**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 (5절)

- ㉠**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을 배정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였는데 그는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온 자들이 이미 조사해 놓았던 기록을 참조했다(참조, 스 2:1-70).

(2)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세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이어 나가면서 계속 전수되어야 할 일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당대에 무리하게 무슨 업적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된다.

(4) 주의 종들은 오직 자기 세대에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절제하므로 그 바탕 위에서 후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전수해 줘야 한다(참조, 딤후, 2:2).

8. **㉠** 본장의 계보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계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6-69절; 스 2:3-67)

㉠ (1) 양서(兩書)의 계보에는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몇몇 사람의 이름과 계보내의 사람 수에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난다.

(2) 즉 인구의 총계에 있어서 본서에는 31,089명이고 에스라에는 29,818명으로서 천 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

(3)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혹자는 필사자의 실수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은 필사자들이 베긴 사본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4) 그러나 우리는 양서(兩書)의 저자가 각기 다르고 양 저자가 사용한 자료가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여하튼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歷史)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9. **㉠** 느헤미야가 입수한 계보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6절)

㉠ (1) 그 계보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대하 36:20) 중에서 놓임을 받고 돌아와 각기 본성(本城)에 거하던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참조, 스 1:1-3).

(2)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하나님의 징벌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료를 볼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훈계를 받아야 한다(참조, 고전 10:11).

10. **㉠** 노래하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가? (44절)

㉠ (1)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으로서 148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리던 때에는 노래하는 자, 즉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었다(참조, 대상 23:5).

(3)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느헤미야 당시의 유다가 얼마나 빈약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4) 그러나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1:36; 렘 3:17; 33).

(5) 이와 같이 성도들이 견고하게 의지할 바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 또한 처해 있는 환경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11. **㉠** 돌아온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몇 명이었는가? (60절)

㉠ (1)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유다로 돌아왔다.

(2)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는 일 등을 하며 봉사하던 자들로서 기브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다(참조, 수 9:17-21; 스 8:20).

(3) 또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솔로몬에게 노예되었던 가나안 사람들로 이해된다(참조, 왕상 9:20, 21).

(4) 한편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자손의 계보에 들어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암시해 준다(참조, 10:28; 창 17:11-14; 요 1:13; 엡 2:8).

- (5)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한 것이다(엡 2:11-19).
12. **㉠** 그 종족과 보제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61-64절)
- ㉠** (1) 그들은 바벨론의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그롭과 앓돈과 임멜 지역에서 돌아온 자들이었는데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함께 642명이었다(61, 62절).
 (2) 또 제사장 중에도 보제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곧 호비아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래 자손이었다(63, 64절).
 (3) 이들이 어떤 이유로 종족과 보제에서 빠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벨론에서 거주할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자손이거나 혹은 자기들의 보제를 업신 여긴 자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4)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보제에 기록된 것에 비해 이런 자들이 그 보제에서 빠진 사실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참조, 고후 6:14-18).
13. **㉠** 본절에 언급된 방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65절)
- ㉠** (1) 이 방백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 중에 총독이었던 스투바벨을 가리킨다(참조, 스 1:8; 5:14).
14. **㉠** 방백이 보제에 들지 못한 제사장 반열의 사람들에게 명한 명령은 무엇인가? (65절)
- ㉠** (1) 그것은 우립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비록 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을지라도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2) 그런데 이 말은 순결하지 못하고 언약을 확고하게 의지하지 못하던 제사장들을 제사장의 직책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일지라도 불의하면 그 직책에서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의 노력이 부족하여 불의한 자를 징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5) 그러나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는 비록 가슴이 아프더라도 잘못된 자들을 징계하며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참조, 히 12:11).
15. **㉠** 당시 돌아온 자들의 총계가 42,360명이었는데 비해 노비의 수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66, 67절)
- ㉠** (1) 당시 유다의 총 인구가 4만여 명인 것에 비해 노비의 수는 7,337명으로 인구 6명 당 1명 꼴로 노비들이 있었다.
 (2) 그런데 대부분이 가난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많은 수의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3) 한편 그들은 비록 종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해서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실은 행복한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 17:11-14; 출 12:44).
 (4) 즉 악인의 장막에서 풍족하게 사는 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행복한 자이다.
16. **㉠**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성(城) 재건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70, 71절)
- ㉠** (1) 백성의 지도자들 중 족장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성 건축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2만 다릭(약 2,6t 정도의 금)과 은 2천 2백 마네(약 1,247kg 정도의 은)를 성 건축에 사용하도록 헌물하였다.
 (2) 또한 백성들의 방백들은 금 1천 다릭(약 130kg 정도의 금)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

복 530벌을 헌물하였다.

- (3) 한편 이와 같은 헌물의 수자는 스 2:68,69에 기록된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 (4)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두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는 두 기록을 기록한 기자(記者)의 관점이 서로 달랐을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 (5) 흔히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 중에 상반되는 이러한 귀절들을 예로 들어 성경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기록자가 주장하는 차이점마저도 포함한 채 진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7. ㉠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 바친 헌물 중에는 제사장들의 옷이 몇 벌이 나 포함되어 있었는가? (72절)

- ㉠ (1) 일반 백성들의 헌물 중에는 제사장의 의복이 67벌이나 있었다.
- (2)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은 예복(출 28:6-12)과 예복 받침 겹옷(출 28:31), 견대(출 28:25), 관(출 28:37), 반포 속옷(출 28:39), 띠(출 29:5), 고의(출 28:42) 그리고 판결 흉패(출 28:15) 등 한 세트였다.
- (3) 이들 예복에 많이 사용된 재료들은 금(하나님의 존귀를 상징)과 청색(하나님의 왕권을 상징) 옷감 그리고 흰색(순결과 성결을 상징) 옷감 등이었다.
- (4) 이처럼 백성들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옷을 67벌씩이나 준비한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종교적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대변해 준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 열망은 결국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부패와 부정을 몰아내는 동인(動因)이 되기 때문이다.

18. ㉠ '은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73절)

- ㉠ (1) 이것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각기 그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스 2:70).
- (2) 이 일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행한 예언의 성취라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참조, 사 44:26-28).
- (3) 더우기 위와 같은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평안케 하시는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본장의 요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위인이 중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2절).

제 8 장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草幕節)을 지키다

단락구분 1-8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 9-12 백성들이 위로받다 / 13-18 백성들이 초막절(草幕節)을 지키다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칠월 일 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 만한자의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라와 므술람이라

5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지회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날은 성일이니 마땅히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13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곁에 모여서

14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 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팔 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1. Q 본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 계속 어떤 일을 진행하였는가?

A (1) 모든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자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약의 백성답게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청중하려 하였다.

(2)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학사(學士)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하에 모세의 율법을 듣

고서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며 울었다.

- (3) 그러나 백성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그 외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권면을 받고 슬픔에서 일어나 율법이 명한 대로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성벽이라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준행하는 내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
- (5)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정도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바를 다 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진실로 우리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고전 10:31-33).

2. **㉠**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어느 때인가? (1절)

- ㉠** (1) 백성들은 성벽 공사가 끝난 후(6:15) 각기 자기들의 본성으로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종교 교력으로 7월(태양력으로는 9,10월), 즉 초막절이 끼인 달에 다시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레 23:24).
- (2)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옛날의 영광의 상태에서 비천한 상태로 몰락한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게 된 때였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통과함으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참조, 욥 23:10).

3. **㉠**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절)

- ㉠** (1)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된 백성들은 율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관해 훤히 알고 있었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였다.
- (2)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을 자원하여 들으려고 할 정도까지 신앙이 회복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참조, 시 119:131-136).

4. **㉠** 본문에서 에스라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술되었는가? (1,2절)

- ㉠** (1)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학사(學士)이며(1절) 제사장(2절)으로 묘사되었다.
- (2) 에스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B.C. 465-423)가 황제가 된 후 7년(B.C. 458)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자로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스7:6)였다(비교, 1:1-3).
- (3)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당시는 귀환한 유대인들까지도 벌써 많이 이방화 된(참조, 스 9:1) 형편이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다(참조, 스 9:2).
- (4) 그리하여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 전역에 회개 운동을 일으켜(참조, 스 9:5;10:1,2)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회복케 하였다.
- (5) 그러나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같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 (6)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6:9).

5. **㉠** 당시 백성들은 율법을 듣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의 열심이 있었는가? (2,3절)

- ㉠** (1) 백성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 모두가 새벽부터 모여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 (2) 당시 백성들의 분위기는 진지하였고 귀를 기울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내야 하며 귀를 기울여 온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행 10:33).

6. **㉠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講壇)에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누구인가? (4절)**

㉠ (1)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옆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은 맛디다, 스마, 아나야, 우리아, 힐기야, 마아세야,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밧다나, 스가랴, 므슬랍 등이었다.

(2) 이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앞장선 제사장들이었다.

(3)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서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4) 비진리와 어두움이 만연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서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일군이 절실히 필요하다(참조, 마 24:45).

7. **㉠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5절)**

㉠ (1)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2)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 인간 에스라에 대한 예의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3) 오늘날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참조, 요 10:27).

8. **㉠ 에스라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송축(頌祝)하였는가? (6절)**

㉠ (1) 에스라는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 즉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으로 알고 송축하였다.

(2) 에스라가 섬기는 여호와는 세상에 많은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스스로 제신 분(참조, 출 3:14)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셨다(참조, 창 17:1-8).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범죄할 때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일지라도 그들을 징벌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4)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체험한 에스라는 자신과 백성들의 그때 형편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5) 이들과 같이 우리들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단 3:18).

9. **㉠ 백성들이 율법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한 태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5, 6절)**

㉠ (1) 당시의 백성들은 율법을 듣기 전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들의 태도로 보아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2)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3)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한 말씀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도덕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드려서 사야 할 생명의 양식이다(참조, 시 119:72; 잠 8:10).

10. **㉠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떻게 화답하였는가? (6절)**

㉠ (1) 백성들의 대표로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였다.

(2) 더우기 그들은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자신들을 지극히 낮추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3) 이러한 경배의 태도는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다. 즉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 29:19).

11. ㉠ 어떤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가르쳤는가? (7절)

- ㉠ (1) 레위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낭독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2) 그들은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등이었다.
 (3) 그런데 본문에 위의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라고 번역한 것은 문맥상 위에 기록한 '13명의 레위 사람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참조, 9:5; 10:9-14; 레 10:11).
 (4) 이처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그당시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5) 더우기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에 분명하다.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참조, 살전 5:25).

12. ㉠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가? (9절)

- ㉠ (1)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울고 말았다.
 (2) 그들이 이렇게 울었던 것은 자기들의 처지가 율법이 말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참조, 5:1-8).
 (3)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청중하려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4)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참조, 행 3:37).

13. ㉠ 지도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 (9-11절)

- ㉠ (1)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또한 울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2) 왜냐하면 그날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일(聖日), 즉 여호와만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3)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애통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기를 명하셨다.
 (4) 사실 자기들의 슬픔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이다.
 (5) 우리들도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들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약 4:8-10).

14. ㉠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였는가? (10절)

- ㉠ (1)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또한 울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오히려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였다.
 (2) 그것은 그때의 시간이 점심 시간이었기(3절) 때문이며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힘이 없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자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를 또한 권면했다.
 (4) 이와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은 자기 혼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여야 할 일이다.

(5)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 혼자서만 예수 잘 믿고 배부르고 편안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식을 가지고 서로 들보며 함께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참조, 행 2:43-47).

15. ㉠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권면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12절)

- ㉠ (1) 백성들은 '모두' 권면을 듣는 즉시 각자가 식사할 곳에 가서 먹고 마시며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
 (2) 이렇게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은 대로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행동이었다.
 (3)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참조, 약 1:22).

16. ㉠ 백성들의 태도로 보아서 당시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낭독한 율법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었던가? (12절)

- ㉠ (1) 당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 슬픔을 그치고 성일(聖日)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한 태도로 보아(참조, 신 16:11, 12, 15)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낭독한 율법은 신명기 부분이었음이 분명하다.
 (2)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 낭독은 율법이 규정한 레위인들의 의무로써 레위인들은 매 7년마다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레 10:11; 신 31:9-13).

17. ㉠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모인 자들은 누구였는가? (13절)

- ㉠ (1) 그들은 전날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중에서 족장된 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다.
 (2)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욱 밝히 알기 위해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가 머물던 곳에 모였다.
 (3)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인도되어지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먼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도록 애를 써야 한다(참조, 답후 2:15).

18. ㉠ 에스라는 율법의 어느 부분을 지도자들에게 보여 주었는가? (14, 15절)

- ㉠ (1) 에스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력의 7월인 것을 알고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참조, 레 23:23-44; 신 16:13-17).
 (2) 그런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3) 한편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민중들에게 들려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참조, 16:21-23).

19. ㉠ 백성들은 어디에다 초막을 지었는가? (15, 16절)

- ㉠ (1) 백성들은 에스라에게서 초막절에 대해 상세하게 배운 지도자들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였다.
 (2)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집 지붕 위에 혹은 집의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그들이 모였던(3절) 수문(水門) 광장에 또 에브라임 방향으로 가는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3) 이같이 백성들은 혼연 일체(渾然一體)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었다.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참조, 골 3:1-10).

20. **㉠** 저자는 당시의 백성들의 초막을 지은 후의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ㄱ)
- ㉡** (1) 저자는 당시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무리가 다 초막을 지었고 그 볼품 없는 초막에 거하면서도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묘사했다.
- (2) 사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였다(참조, 신 16:1-17).
- (3) 그런데 이 절기는 여호수아 이래로 계속 지켜왔지만(참조, 왕상 8:65; 스 3:4), 느헤미야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킨 적은 없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언약의 백성 모두에 의해 기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레 23:43).
21. **㉠**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는 절기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낭독했는가? (18절)
- ㉡** (1) 에스라는 초막절의 기간인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 (2) 이러한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참조, 신 31:10-13).
- (3)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태도를 결정해야 했다.
-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도(道)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참조, 고전 4:20).

연구자료

감람나무(Olive tree). 신약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자주 언급되어 있다(신 6:11; 시 128:3; 약 3:12). 히브리어로 <자이트>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철나무로서 지중해 전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팔레스틴에서는 특히 베들레헴, 헤브론, 나블루스(Nablus) 등과 같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거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감람나무와 그 열매는 식료품, 연료, 기름 및 의약품, 목공품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감람유는 구약 시대에 성막 안의 성소를 밝히는 등유(燈油)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 우의적 표현이나 시적 비유 또는 상징들과 관련하여 흔히 언급되고 있다. 요담(Jotham)은 세째인들에게 아비멜렉(Abimelech)이 불의하게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비유를 들려 주었다(삿 9:1-21).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사실을 들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롬 11:13-24).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시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온 사건은 이 나무가 평화를 상징함을 암시한다(창 8:11).

제 9 장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단락구분 7: 6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와 경배 / 7: 31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난날을 회고하다 / 12: 78 하나님께 당시의 곤난을 탄원(歎願)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다

1 그 달 이십 사 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러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

과하게 하시고 쫓아 오는 자를 들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13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14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15 저희의 주립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니

16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19 주께서는 언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21 사십 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름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 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쁨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할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체어됨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 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 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31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2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33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34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35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쁨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37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체를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38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1) 이스라엘 자손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흠어졌다가 며칠 후에 다시 모여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
- (2) 이러한 그들의 회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배로 이어졌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였다.
- (3) 또한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던 곤난(困難)을 하나님께 탄원(歎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 (4)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깊이 새기고 언약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 (5)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한 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참조, 약 2:5).

2. ㉠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을 지키고 난 후 흠어졌다가 언제 다시 모였는가? (1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을 지킨 그 달 24일에 모두 다시 모였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날짜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기된 절기는 아니었다.
- (2) 그런데도 백성들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타끌을 무릅쓰면서 자기들의 죄

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自服)하며 회개하였다.

(3)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와 당시의 수치를 벗고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되었다.

(4)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신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형식과 체면을 뛰어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3. **Q** 초막절 행사 후 모인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3절)

A (1) 그들은 그날 낮시간의 1/4(약 3시간)은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지냈고 그 후의 1/4은 죄를 자복하면서 보냈다.

(2) 즉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 후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깊은 회개를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좋은 귀감이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의 행위에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신앙 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다.

(3) 특히 이러한 모든 일은 단순한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신앙의 행위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고 질서가 잡힌 것이어야 한다(참조 고전 14:40).

4. **Q** 어떤 사람들이 대(臺)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4절)

A (1)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등이 연단에 올라서서(8:4)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 그들은 레위 사람들의 가문을 대표했거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 총명하고 율법을 많이 공부한 지도자들이었다.

(3)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회개의 표시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5. **Q** 레위인들 중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였는가? (5절)

A (1)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손하시는 하나님(참조, 출 3:14; 신 32:39, 40)으로서 이스라엘 자손과는 언약에 의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다(참조, 출 19:5, 6).

(2)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특별 계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었다(참조, 출 3:14).

(3) 이러한 신관(神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전수되어졌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졌다.

(4) 하나님은 어둠과 죄악이 가득찬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가신다.

6. **Q**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여야 하는가? (5절)

A (1)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여 인간들의 모든 송축이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찬송받아야 할 그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으로 가리워졌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의 회복과 함께 다시 찬송을 받게 되었다.

(3)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의 백성의 잘못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는 일에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Q** 레위인들이 노래한 찬양과 회개의 시(詩)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5-37절)

A (1) 이 시(詩)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

사를 개략적으로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내시고 '언약'을 세우심으로(창 12:1-3) 시작되었다(7, 8절).
- (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율법을 주셨다(9-14절).
- (4)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어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심으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다(15-25절).
- (5) 그런데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의 종이 되었다(26-30절).
- (6) 그런 중에도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고 남겨 두셨다(31, 32절).
- (7)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었고 아무리 어려운 곤경에 처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여야 했다.
- (8)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성실하게 준행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 덕택에 날마다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

8. **㉠** 모든 천군, 즉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日月星辰)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 (3) 또한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두 다 손으로 붙잡고 돌보듯이 보존하시고 계신다.
- (4)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9. **㉠**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7, 8절)

- ㉠** (1)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言約)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러한 의(義),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가장 큰 축복이며 동시에 특권이다.

10.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8절; 창 17:1-8)

- ㉠** (1)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창 12:1, 2) 그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7:7).
- (2)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창 17:8).
- (3)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言約)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여 준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는가? (13절)

- ㉠ (1) 그것은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었다.
 (2) 그런데 이 율법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서 비천하고 저급한 상태에 있던(참조, 출 16:3)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직하고 통치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3) 한편 이것들은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온 특별한 계시인 사실을 기억하여 성도들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인 줄 알고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는가? (14절; 출 20:8-11)

- ㉠ (1)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다(1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세우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참조, 창 2:3).
 (2)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는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준다(참조, 출 20:2, 8-11; 쥬 20:12).
 (3) 그러므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에만 전력해야 했다(참조, 출 31:13-15).
 (4)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드러내 주는 은혜로운 제도였다(참조, 출 31:16, 17; 막 2:27).

13. ㉠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9-21절)

- ㉠ (1)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선한 신, 즉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다(19, 20절).
 (2) 또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고(참조, 출 16:14, 15; 시 78:23, 24)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참조, 출 17:6; 시 78:15, 16; 105:41).
 (3)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보호하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다(21절).
 (4)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그 백성들에게 큰 교훈과 격려가 되었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된다.

14. ㉠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30, 3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랫동안 용서해 주시고 또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주의 신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30절; 참조, 렘 25:4).
 (2)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29절) 선지자들의 경계도 듣지 않았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셨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던 것이다(참조, 사 42:24).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황을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참조, 17절).
 (5)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공황과 용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황과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참조, 엠 1:7;2:4).

15. **Q**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게 되었는가? (32절)
- A** (1)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인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참조, 창 17:7, 8).
- (2)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람들과 달리 두려우시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
16. **Q**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33-37절)
- A** (1)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진행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당시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 (2) 즉 그들의 열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계속 행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다고 이해하였다(참조, 신 30:1-10).
- (3)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歷史)를 경영하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징벌하여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도 하셨다.
- (4)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매를 준비해 두시기 때문이다(참조, 히 12:8).
17. **Q**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로 당시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 (36, 37절)
- A** (1) 이스라엘 자손들은 범죄의 결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즉 그들은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었다(참조, 스 9:9).
- (2)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부자유하고 곤난이 심한 삶을 살고 있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려 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먹고 누려야 할 것조차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고 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과 짝하면서 세상 것을 탐하기 보다 고난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또한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한다(참조, 딤후 1:8).
18. **Q**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아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38절)
- A** (1)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의지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시는 긍휼과 그 언약이었다(참조, 레 26:40-44; 신 30:1-10).
- (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하였다.
- (3)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서라도 의지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약속이다.

제 10 장 언약에 인(印)친 방백들과 백성들의 맹세

단락구분 1-27 언약에 인(印)친 방백들의 명단 / 28-39 백성들이 언약에 순복할 것을 맹세하다

1 그 인친 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라, 예레미야,
 3 바스홀, 아마라,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록,
 5 하림, 므레못, 오바다,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아, 미야민,
 8 마아시아, 빌개,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 이요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흠, 하사바,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13 호디아, 바니, 브니뉴요
 14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합모압, 엘람, 샷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래,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앓술,
 18 호디아, 하숨, 베세,
 19 하림,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앓두야,
 22 블라다,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숨,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25 르흠,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록, 하림, 바아나이었느니라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29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와의 모든 계명

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
 30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뿔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만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
 리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가?

- ㉠** (1) 본장에는 먼저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방백들의 명단이 기록되었고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던 맹세의 내용이 서술되었다.
 (2)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기를 맹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3)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 결심을 해야 한다(참조, 롬 6:15-23).

2. **㉠** 언약에 인(印)친 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1-27절)

- ㉠** (1) 그들은 행정관들(1절), 제사장들(2-8절), 레위인들(9-13절),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14-27절)로 구성되어 있었다.
 (2) 행정관은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시드기야이며 제사장들은 2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스룹바벨 때까지 제사장 반열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참조, 대상 24장).
 (3) 또한 레위인들의 기록된 이름은 17명으로서 이들은 개인을 의미하기 보다는 가문과 족속을 대표한 이름이다. 그리고 백성들 중의 우두머리들은 44명이었다.
 (4) 이렇게 언약에 인친 자들은 당시 유다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표한 자들이었다.
 (5) 그런데 유다 사회의 풍습대로 각 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 언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언약에 인친 결과가 되었다.
 (6)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 지위의 고하가 따로 없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바라보신다.

3. **㉠** 언약에 인(印)친 자들의 명단에서 맨 앞에 기록된 인물은 누구인가? (1절)

- ㉠** (1) 맨 앞에 기록된 인물은 하가라의 아들이며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이다.
 (2)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명단의 선두에 나온 것은 그가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솔선하였기 때문이다.
 (3)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솔선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다.
 (4)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도자된 자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현실 속에서 솔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힘쓰며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 13:15, 16).

4. **㉠**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8절)

- ㉠** (1) 이 말은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참조, 7:46)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은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하며 진행시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연합한 자들로서 남녀 노소 구별없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로 묘사되었다.
 (3) 그런데 유다인들에게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지식을 의미한다(참조, 잠 1:7).
 (4) 한편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식을 소유한 총명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엠 5:17).

5. **㉠** 당시 백성들이 다 귀인들을 따라서 맹세한 것은 무엇을 따른 행위였는가? (29절)
- ㉡** (1)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한 것이었다.
 (2)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언약의 주인되신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을 맹세하였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에서 규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참조, 딤후 3:16, 17).
 (4)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참된 인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참조, 시 119:105).
6. **㉠**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30-39절)
- ㉡** (1) 백성들은 다음 사항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즉 ①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않는다(참조, 신 7:1-4). ② 안식일과 성일(聖日)에는 상행위(商行爲)를 하지 않는다(참조, 출 20:8-11). ③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참조, 출 23:10-13). ④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2) 그런데 백성들이 맹세한 이러한 내용은 당시에 잘 지켜지지 않던 일들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문제였다.
 (3)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4)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을 하여야 한다(신 13:4).
7. **㉠** 백성들은 혼인(婚姻)에 대해서 무엇을 맹세하였는가? (30절)
- ㉡** (1) 이스라엘 자손, 즉 언약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2)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신 7:3, 4)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경건 운동이었다.
 (3) 그런데 율법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한 배타주의적(排他主義的)인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 순수성을 지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4) 여기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피로운 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약 1:27).
8. **㉠**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겠다고 하였는가? (31절)
- ㉡** (1) 그들은 안식일에 주변 이방인들이 물화(物貨)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2) 안식일에 이러한 상행위(商行爲)를 금지하는 것은 세상의 먹고 사는 일로 인한 고역과 피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안식일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20:8-11; 막 2:27).
 (3) 그러므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금지 사항을 지키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9. **㉠**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졌는가? (31절)
- ㉡** (1) 안식년은 제 7년마다 모든 경작지를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蕩滅)하는 것 등으로 지켜졌다(레 25:1-7; 신 15:1-4).
 (2)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재생(再生)과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제도였다. 즉 경작지를 1년 동안 쉬게 하므로 그 땅의 지력(地力)을 높여 다음 해의 풍성함을 기약할 수 있게 했고, 빛에 쪼들려 살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제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3) 이러한 제도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오늘날에 장려되어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4) 더우기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과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한 제도라는 점에서 기억할 만한 것이다(참조, 눅 4:17-19).

10. ㉠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을 거두어 들이기로 정하였는가? (32, 33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聖殿稅)를 거두어 들이기로 하였다(32절).
 (2) 즉 성전의 유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성전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한 사람당 1/3세겔씩 세금을 거두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성막 봉사를 위해 속전으로 반 세겔씩 출자했으나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자 그것을 1/3세겔로 줄인 듯하다.
 (4)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제 상태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음에도(참조, 5:1-5)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들의 책임을 다하려 한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참조, 고후 8:1-5).

11. ㉠ 당시에 거두어 들이는 성전세는 어떤 일에 사용되었는가? (33절)

- ㉠ (1) 성전세는 예배와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2) 구체적으로는 성소에 놓을 진설병(참조, 출 25:30; 레 24:5-9), 항상 드리는 소제(참조, 레 2:1, 13, 15; 5:11)와 번제(참조, 레 1:4; 17:11),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참조, 민 28:9-15)과 성물(聖物)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기타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
 (3) 이렇게 구약 시대는 대부분의 헌물이나 헌금이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헌금은 윤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
 (4)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예배당 건축, 관리, 유지하는 데 많이 투자하기보다 교회의 지체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령(救靈)사업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참조, 고전 16:1).

12. ㉠ 제사드릴 때 필요한 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였는가? (34절)

- ㉠ (1) 성전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는 돈으로 사지 않고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해서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하였다.
 (2)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때에는 제외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 책임을 지게 하였다.
 (3)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모든 백성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지경에서라도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

13. ㉠ 이스라엘 자손이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 (35 - 37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큰 표시였기 때문이다.
 (2) 즉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소유물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지만(참조, 출 19:6) 하나님께서는 장자와 처음 난 것을 그것들의 대표로서 받으시므로 모든 이스라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셨다(참조, 출 13:2, 12, 13; 신 18:1-5).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들의 본분과 존재하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신들을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쳐야 했다.
- (4)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고전 6:19, 20).

14. **㉠**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물산(物産)의 십일조를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37절)

- ㉠** (1)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에게 각 성읍에서 나오는 물산(物産)의 십일조를 주도록 율법에서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민 18:21-32).
- (2)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십일조를 드리기로 맹세를 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로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경제생활 면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여야 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은 경제 생활 면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므로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5. **㉠**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분배받을 때 어떤 사람이 함께 있었는가? (38절)

- ㉠** (1) 그때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도록 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이라고 수식하므로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과의 계통적 차이와 권위가 구별된 것을 나타내었다.
- (3) 이런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 함께 있으므로 그 분배물이 거룩한 것임을 생각해 하고 또 성전에 보관할 십일조의 1/10을 잘 간수도록 감독하였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할 때도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간수하고 감독해야 한다.

16. **㉠** 백성들이 드린 물산(物産)의 십일조 중 1/10은 어디에다 보관하였는가? (38, 39절)

- ㉠** (1) 그것은 제사장의 감독하에 하나님의 전(殿) 골방 곧 고간(庫間)에 두었다.
- (2) 이것은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 (3) 오늘날도 교회의 재정에서 교역자들과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이 생활에 결핍됨이 없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도 적절하게 보조해 주어야 한다.

17. **㉠**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세와 십일조를 드리기로 맹세한 이유는 무엇인가? (39절)

- ㉠** (1) 그것은 그들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여러 의무들을 행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하였던 하나님의 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인간의 조력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인양 생각하여 인간이 어떤 호의를 베풀어 조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3)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내리신 은혜의 큰 징표이므로 인간은 감사와 경배로써 그 성전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 (4)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성도들 중에 마치 교회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 힘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기라도 할듯이 교만히 행하는 자가 많은데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연구자료

정경(正經)의 역사

(1) 정경

오늘날 사용되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왜 66권만이 성경으로 인정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문, 즉 어떤 책이 성경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곧 정경의 문제이다. 정경'을 의미하는 헬라어 <캐논>은 본래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그 영감성과 권위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인정을 받은 책들의 집합을 가리키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성경 각 권은 그것이 정경으로 확증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교회나 공의회는 그 같은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이라는 한 책 속에 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근거로 정경을 확정했는가? 첫째,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 즉 본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내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저자의 권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경 기록자는 각계 각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다. 셋째, 정경으로 승인하는 교회의 일치된 확증을 필요로 하였다. 내용상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된 책은 교회에 의해 정경으로 승인되지 못하였으니 그러한 책이 바로 외경(外經) 및 위경(偽經)인 것이다.

(2) 정경 형성의 역사

그렇다면 정경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 성립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것과 정경으로 공인된 것은 별개의 일이며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경은 성경 각 권이 기록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책의 기록이 끝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경의 형성'이란 사실상 교회에 의한 정경의 승인을 의미한다. 한편 정경 형성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정경이 B. C. 5세기경 에스라(Ezra)에 의해 수집되고 인정을 받아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체제는 오늘날의 것과는 다르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이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뉜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첫 권은 창세기이며 마지막 권은 역대기이다. 또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반해 히브리 성경이

24권인 이유는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에스라와 본서인 느헤미야,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각 1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구약 정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그분께서는 아벨에서부터 사가라까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죽인 죄에 대해 서기관들을 정죄하심으로써 구약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셨다(눅 11:51). 물론 아벨의 죽음은 창 4장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가라의 죽음은 대하 24:20, 21에 언급되어 있다. 한편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공의회는 A. D. 397년의 카르타고 회의였다. 그러나 일부 책들은 이보다 앞서 사도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었으며(참조, 벨후 3:16) A. D. 363년의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도 역시 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등과 같은 여러 책이 성경으로서 인정을 받았었다. 아문든 27권의 신약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정경성 여부를 심사받은 끝에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일대 집대성(集大成)되었는데 오늘날처럼 구약이 39권으로 분류된 것은 70인역(LXX)의 편집 체제를 본따기 때문이다.

(3) 정경 본문의 전승

구약 성경의 원본은 B. C. 1450년경(모세 시대)부터 B. C. 400년경(말라기 시대)까지 주로 양피지(羊皮紙)나 파피루스(papyrus) 등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본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낡아져 자연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사본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는 1947년 쿨란(Qumran)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 있는데 B. C.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시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수정본' 등을 참고하여 만든 A. D. 9세기경의 '맛소라 본문'(Masoretic Text, 오늘날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사해 사본'과 비교해 본 결과 '마소라 본문'이 대단히 정확하다는 점이다. 한편 신약 성경은 오늘날 5,000개 이상의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및 약 75개의 파피루스 단편들도 있다. '시내 사본'은 A. D.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귀중한 사본이다. 아문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들에게 전승된 성경은 276개 언어로 번역되어(1980년 통계) 오늘날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

제 11 장 예루살렘 거민(居民)을 증원(增員)시키다

단락구분 1-2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예비함다 / 3-24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 / 25-36 예루살렘 밖
향촌(鄉村)의 거주민들

1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예비됨이 심본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2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4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오 대 손이며

5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 대 손이요 스가라의 육 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 대 손이라

6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사백 육십 팔 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무니 저는 므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 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 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 대 손이며

8 그 다음은 감배와 살래 등이니 도합이 구백 이십 팔 명이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트라웃의 현손이요 아히둠의 오 대 손이며

12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팔백 이십 이 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 대 손이요 말기야

의 육 대 손이며

13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이백 사십 이 명이요 또 아맛새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호새의 손자요 므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14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일백 이십 팔 명이라 하그들림의 아들 삼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15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16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삼브대와 요사밧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 또 아삽의 증손 삼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은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18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이백 팔십 사 명이었느니라

19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일백 칠십 이 명이며

20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21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22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뱌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랏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리에 거하며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뽀뽀렛과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28 또 시글랴와 므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하며
 30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 막을
 쳤으며

31 또 베나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므마스
 아와 뽀뽀렛과 그 촌에 거하며
 32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33 하술과 라마와 깃다임과
 34 하딛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5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
 나민과 합하였느니라

1. **㉠** 본장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져 가고 있는가?

- ㉠** (1)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9장), 성전 예배를 위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기로 맹세하였다(10장).
 (2) 이렇게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중건(重建)된 예루살렘 성의 거민을 증원시키는 일이었다(참조, 7:4) 본장에 그 일이 기록되었다.
 (3) 즉 이것을 위해 이미 인구 조사를 하였던(7:5-69) 느헤미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 1/10을 제비뽑아 예루살렘에 거주케 하였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케 하였다.
 (4)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계획들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5) 오늘날의 교회 일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1절)

- ㉠** (1) 먼저 백성의 지도자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10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2) 한편 이같이 제비뽑던 방법은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서(참조, 민 26:55; 수 14:2; 삼상 14:12) 특별히 정치 문제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10:20, 21; 대상 24:5, 25).
 (3) 이처럼 제비뽑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였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수 18:6, 8).

3. **㉠** 당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1절)

- ㉠** (1) 당시에 지방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사는 일은 쉽고 좋은 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었다.
 (2)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수비를 위한 부담과 회생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3) 또한 그들이 이미 살던 고장에는 거처할 집과 생계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거처할 집도 생계를 위한 준비가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4. **㉠** 예루살렘은 어떻게 호칭되었는가? (1절)

- ㉠** (1)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城)'으로 호칭되었다.
 (2) 예루살렘 성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었다(참조, 시 48:1, 2).
 (3)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능욕받고 황무하였던(1:3; 2:3, 17) 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악의 세력에 의해 황폐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해방을 얻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영광된 삶을 예표한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

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다(참조, 고전 6:19).

5. **㉠** 백성들은 어떤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는가? (2절)

- ㉠** (1) 백성들은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自願) 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
 (2) 그것은 그들이 개인의 모든 손해와 불편과 위협을 무릎쓰고 하나님과 동족을 위하여 장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3)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다(참조, 요 12:25).

6. **㉠** 본장의 3-24절 부분에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이 부분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제비뽑혀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명단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4-9절) 제사장들(10-14절), 레위인들(15-18절), 그밖에 특별한 일을 맡았던 자였다(19-24절).
 (3) 그러나 이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향촌(鄕村)에 흩어졌다가 다시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의 본성인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된 것이다.
 (4)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 생각하고 섭리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살길만을 먼저 찾았으며 결국 그들은 이방의 노예로 전락했었다.
 (5)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크신 뜻과 그 영광스런 목적(참조, 벤전 2:9,10)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전 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인간 중심적인 기복 종교(祈福宗教)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7. **㉠**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었는가? (4-9절)

- ㉠** (1)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유다 자손은 468명이었고(6절)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었다(8절).
 (2)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유다 자손보다 훨씬 많았지만 유다 자손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모두 용사였기(6절)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었다.
 (3)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1절) 강건한 용사들이 뽑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참조, 잠 16:33).
 (4) 이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하기 힘든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시 92:1-5; 롬 8:28).

8. **㉠** '베레스' 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베레스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네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로서 유다가 자부(子婦)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중 먼저 나온 아이였다(참조, 창 38:27-30).
 (2) 그런데 이 베레스의 계통을 통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참조, 마 1:3,4).
 (3) 이런 사실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공훈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9. **㉠**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총계는 얼마나 되었는가? (6절)

- ㉠** (1) 그들은 용사들만 468명이었다. 여기서 용사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한다.
 (2) 따라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까지의 수를 합하면 총계는 468명의 몇 배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도 용사들 곧 장정들의 수자만을 기록하였다.

10. **㉠** 시그리의 아들 요엘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9절)

- Ⓐ (1) 요엘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나민 자손들을 대표하는 감독이었다(참조, 스 10:43).
- (2)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인 지위가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지파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이러한 지도자가 특별히 기록된 것은 그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좇지 않는 칭찬할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 (4)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중에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칭찬할 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11. ⓐ 제사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가? (10-14절)
- Ⓐ (1) 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스라야’를 지도자로 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822명(10-12a절) ② ‘아다야’를 위시한 족장들 242명(12b, 13a절) ③ ‘아맛새’를 중심한 용맹스런 용사들이었다(13b, 14절).
- (2) 이렇게 지도층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가 뽑힌 것은 다행스런 결과였다.
- (3)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 (4)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잠 16:3).
12. ⓐ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의 사람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란 성전의 재정과 관리를 맡은 직분자를 가리킨다.
- (2) 이 직분은 힐기야의 아들 스라야가 맡았었는데 그는 므솔람(참조, 스 7:2; 대상 9:11)의 손자이고 므라못(참조, 스 7:3, 4; 대상 6:6, 7)의 현손(玄孫)이며, 아히둡(참조, 스 7:2, 3; 대상 9:11)의 5대손(五代孫)이었다.
- (3) 그런데 성전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조심해서 해야 할 일이었다.
- (4)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성전의 재정이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것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13. ⓐ 삼브대와 요사밧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16절)
- Ⓐ (1) 이들은 에스라처럼 유력한 가문에 속한 족장이었다(참조, 스 10:15).
- (2) 이들이 맡았던 일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로서 하나님의 전 사무를 보살피는 사람들(참조, 대상 23:4)과 구분되는 직분이었다.
- (3) 그런데 그 일은 주로 성전의 행사를 위한 바깥 일, 즉 성전 건물 유지, 보존, 수리, 청소 등과 같은 일이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 훌륭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잡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에 임해야 한다.
- (5)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한 자를 기억하시고 적절한 보상을 허락하신다(참조, 마 25:34-40).
14. ⓐ 맛다냐가 맡았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맛다냐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참조, 대상 6:39-43)으로서 시가(詩歌) 작가요 음악가였던 아삽(참조, 시 50, 73-83편)의 후손이었다(참조, 스 2:41).
- (2) 그는 당시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 즉 성전 안 예배 행사에서

감사의 찬송(일종의 기도)을 인도하는 성악가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사43:41).
- (5)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참조, 시133:1).

15. **㉠** 제비뽑힌 자들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20절)

- ㉠** (1)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 (2) 유다 백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없이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각 기업의 토지에서 농사짓고 일을 해야만 했다.
- (3) 그러나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1, 18절)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각자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비록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과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
- (5) 즉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義)와 평강(平康)과 희락(喜樂)을 누리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가야 한다(참조, 롬14:17).

16. **㉠** 웃시가 말았던 일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웃시는 노래하는 자였던 아삽의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맛다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 전(展)의 일을 맡아 봉사하였다(22절).
- (2) 그가 맡은 일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성전 예배를 위하여 베푼 호의(참조, 스7:20-24)에 의해서 생긴 양식과 재정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었다(23절).
- (3) 웃시는 이런 경제적 실권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 (4)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 (5)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참조, 스7:24) 이방 여인을 취하고(참조, 스 10:16-24) 동족에게 취리(取利)하며(5:7)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실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6) 우리는 교회의 일을 맡았을 때 더욱 조심하여 양 떼를 늑탈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7. **㉠** 예루살렘 밖의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25-30절)

- ㉠** (1) 유다인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4지역(地域), 즉 ① 남방 ② 산간 지대 ③ 예루살렘 서북방 산간 지대 ④ 서방 해안 평야 지대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 (2) 이 지역들은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남방 고지인 기랴트 아바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 지역이었다.
- (3) 그리고 이 지역에 약간 큰 읍 정도의 농촌 소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고 각각의 주변에 위성 촌락(동리)들이 여러 개씩 둘러져 있었다.

18. **㉠** 소라는 어디에 위치한 성읍이었는가? (29절)

- ㉠** (1) 소라는 예루살렘 서쪽 23km 지점 소렉 골짜기에서 높이 244m의 구릉 중턱에 건설된 성읍으로서 서남 3km 지점에 있는 요새 벤세메스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참조, 사18:2, 8, 11; 수15:33).
- (2) 그리하여 소라는 벤세메스와 함께 평원과 산악 지대를 잇는 요로인 소렉 골짜기의 중요한 요새가 되었다(참조, 대하 11:10).

(3) 한편 소라는 청동기 시대 말기부터 철기 시대에 걸쳐 번영한 성읍으로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밀과 감람의 풍성한 소산지였다.

19. ㉠ 예루살렘 밖의 베냐민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31-35절)

- ㉠ (1)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에서부터 므마스과 아야와 벨엘과 아나돗, 늪, 아나나, 하솔, 라마, 깃다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그리고 세공업자들이 살던 공장(工匠)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 (2) 이들 지역은 예루살렘 북방과 서북방 산지의 지역들로서 본래 베냐민 사람들이 분배받았던 지역이었다(참조, 수 18:11-28).
- (3) 이제 그들의 수효는 적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강해져 가게 되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눅 15:3-7).

20. ㉠ '라마'는 어떤 곳인가? (33절)

- ㉠ (1) 라마는 옛적에 사무엘이 거처하던 곳(참조, 삼상 7:17)이며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남방의 국경 경비상 중요한 곳이었다.
- (2) 현재는 예루살렘 북방 10km 지점에 있는 '엘람'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21. ㉠ '공장(工匠)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35절)

- ㉠ (1) '공장(工匠) 골짜기'는 세공업자들(참조, 3:8, 31) 또는 가내 수공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 (2)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이나 지방에서 주민들의 직업에 따라 닭전 거리, 갓전 거리, 마전 거리, 싸전 거리 등으로 불리우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 (3) 그리고 '공장(工匠) 골짜기'는 '로드'와 '오노'의 주변이었고 사해(死海)로 흐르는 지류의 계곡 근처 수림이 우거진 지역으로 추정된다.

22. ㉠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다'는 귀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6절)

- ㉠ (1) 이 말은 지금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섞여 살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 (2) 사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었다(참조, 수 21:4-7).
- (3) 이러한 레위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백성들인가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보여 준다.
- (4)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참조, 출 19:5, 6).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들로서 살아야 하며 세상의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의와 기록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계 1:6).

제 12장 예루살렘 성곽(城廓)을 봉헌(奉獻)하다

단락구분 1-11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 12-21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 / 22-26 레위 자손의 족장들 / 27-43 예루살렘 성곽의 봉헌식 / 44-47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다

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2 아마라와 말록과 핫두스와

3 스가냐와 르흠과 므레못과

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5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6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7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8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나니 이 맛다나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10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아다를 낳았고

11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12 요아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13 에스라 족속에는 므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14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15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웃 족속에는 헬개요

16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므슬람이요

17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18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19 요아립 족속에는 맛드내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요

20 살래 족속에는 갈래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21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벨이었느니라

22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24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 맛다나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슬람과 달론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공간을 파수하였나니

26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7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29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뎃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 하는 자의 큰 무리쯤 두 떼로 나누어 성 위로 향렬을 지어 가게 하는 데 한 떼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33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슬람과

34 유다와 베나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35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의 오 대 손 아삼의 육 대 손 스가랴와

36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

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 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39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빌 망대와 함매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40 이에 감사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1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웃시와 여호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43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궐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쯤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45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험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역에 거주지를 정한 후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로 예루살렘 성궐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 (2) 또한 이것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기사를 본장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봉헌식 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본분을 다하였다.
- (3)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성답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신앙과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결을 한결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참조, 롬8:24, 25).

2. ㉠ 봉헌식을 하기 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1-26절)

- ㉠ (1)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계보를 살펴서 기록하였다.
- (2)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 성전에서 경건한 예배 의식을 갖기 위해 포로 시대에 잊혀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옛 지위를 점점 회복시켜 갔다(참조, 스1:5; 3:2; 6:17, 18; 7:24; 8:35).
- (4)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약한 상태에서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城)이 견고하게 섰을 때 비로소 레위인들이 해야 할 본래의 임무, 즉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수행되었다(참조, 민3, 4장).

3. ㉠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1-7절)

- ㉠ (1) 그 제사장들은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묵, 핫두스, 스가냐, 르훔, 트레못,

잇도, 긴느도이, 아비아, 미야민, 마아다,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등 22명이었다.

- (2) 한편 22명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라의 이름이 들어 있지만 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학사인 에스라가 아닌 동명 이인(同名異人)이었다.
- (3) 이들은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던 자들이었다(참조, 스1:5).
- (4) 그리하여 이들은 비록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황폐해진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 하는 일의 시작이 미미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반(基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 **㉠** 예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 11절)

- ㉠** (1) 예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동시대의 인물로서(1절)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첫번째 대제사장이었다.
- (2) 그런데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계승되다가 여호사닥 시대에 이르러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감으로써 중단되었다가(대상 6:1-15)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에 의해 대제사장직이 계속 계승된 것이다.
- (3) 이러한 대제사장의 계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아에서 요아김으로, 엘리아십(참조, 3:1)으로, 요아다로, 요나단으로, 약두아로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 (4)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아직 떳떳한 자주국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참조, 출19:6).
-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율법주의(律法主義)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이 되었다.

5. **㉠**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은 누구인가? (12-21절)

- ㉠** (1) 그들은 므라야, 하나냐, 므슬람, 여호하난, 요나단, 요셉, 아드나, 헬개, 스가라, 므슬람, 시그리, 빌대, 삼무아, 여호나단, 맛드내, 웃시, 갈래, 에벨, 하사바, 느다넬 등으로 1-7절에 기록된 자들의 자손들이었다.
- (2) 이와 같이 비록 기록상으로는 단지 몇 줄로써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생애를 통해 시공간(時空間) 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즉 한 세대의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그 후예들이 나타나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6. **㉠**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진 인물은 누구인가? (24절)

- ㉠** (1)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스런 왕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참조, 대하 8:14).
- (2)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세우신 사람으로서(참조, 삼상 16:11-13) 열왕(列王)들의 큰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 (3) 그리고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누어 조직하여(참조, 대상 25:1-31)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하였다.
- (4) 한편 느헤미야 당시에는 비록 다윗 시대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이 정한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

(5)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물량적이고 수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찬 마음임을 알 수 있다.

7. **㉠**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움으로 예루살렘 성곽(城廓) 봉헌식을 거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7-43절)

㉠ (1) 그것은 먼저 악조건과 미약한 처지에서 난공사(難工事)를 단시일 내에 무사히 완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2) 또한 사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심정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봉헌식을 즐겁게 거행하였음이 분명하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즐겁게 드려야 한다.

8. **㉠** 봉헌식은 어떤 순서를 거쳐 진행되었는가? (27-43절)

㉠ (1) 봉헌식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거이 행하기 위해 (27절) 레위인들 중 노래하는 자들을 모으는 일(28, 29절)로부터 시작되었다.

(2) 그리고 예식을 집행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30절) 이어 큰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 성벽 위로 행진하는 순서를 갖고난 후(31-39절) 희생 제사를 드리는(40-43절) 순서로 식을 진행하였다.

(3) 이 봉헌식은 무의미한 세속적 행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해진 일종의 예배 행위였다.

(4)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호흠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12:1,2).

9. **㉠** 이스라엘 자손은 성곽 봉헌식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켰는가?(27-29절)

㉠ (1)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을 즐거이 행하기 위해 여러곳에 사는(28,29절)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들여서 노래하며 제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도록 준비시켰다.

(2) 이에 이스라엘 자손 중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진하여 모여들었다.

(3)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4)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처럼 특별하게 율법적으로 정해진 찬양대가 없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같이 힘써야 한다.

10. **㉠** 성곽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30절)

㉠ (1)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므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참조, 사 59:1,2; 요일 1:6-10).

(2) 그리하여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또한 봉헌할 성문과 성까지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였다.

(3) 그런데 정결케 하는 예식은 금식과 희생 제물을 드려 피를 뿌리는 일과(참조, 출 12:22; 레 14:4-7) 거룩한 물을 뿌리는 일(참조, 민 19:9,17,18)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4)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을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 1:9).

11. **㉠** 느헤미야는 찬송하는 무리를 몇 떼로 나누어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하였는가? (31절)

- ㉠** (1)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성벽 위로 행렬(行列)을 지어 가게 하였다.
- (2) 그런데 이렇게 성 위로 행렬을 지어 간 것은 그 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 (3) 즉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성벽 한 부분 한 부분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받으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행한 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하나를 주께서 받아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참조, 시 127:1).

12. **㉠** 느헤미야가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곽 위로 올라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31, 38절)

- ㉠** (1) 그것은 찬송하는 자들(참조, 27절)이 성곽 위에 서서 감사 찬송을 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2)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사(行事)가 인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성도들의 모든 행사(行事)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행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13. **㉠**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의 절정은 어느 것이었는가? (43절)

- ㉠** (1) 그것은 두 떼로 나누어서 성곽 위로 행한 행진을 마친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집결하여 대규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 (2) 이러한 제사는 성곽 봉헌식의 모든 행사를 종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 (3)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땅 위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저 인간은 감사하여 몸들 바를 모를 뿐이다.

14. **㉠**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를 드린 후 매우 즐거워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1) 그들은 대단히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 맛보는 즐거움과는 달랐다.
- (2)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심히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므로 이 즐거움은 땅위의 즐거움이 아니라 천상(天上)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 (4) 성도들의 참 즐거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나라의 즐거움이다.

15. **㉠**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는 어떠한가? (43절)

- ㉠** (1) 이스라엘 자손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할 정도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컸다.
- (2) 그리하여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 뿐 아니라 그 주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
- (3)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예루살렘의 즐거움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즐거움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즐거움이 되었다.
- (4) 또한 그 즐거움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공감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한다.

(5)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서 이런 즐거움을 세상에 전하여 온 세상이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 성곽 봉헌식이 끝난 후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은 무엇인가? (44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성곽 봉헌식을 마친 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발에서 거두어 들였다(참조, 10:37).
- (2) 이러한 구체적인 율법의 실행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 (3)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실행하였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서 은혜받은 자답게 그 생활 속에서 성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17. **㉠**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44절)

- ㉠** (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 (2)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 (3) 즉 오늘날은 특정한 제사장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이렇게 참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세우신 제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5)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격려와 협조를 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갈 6:6,7).

18. **㉠**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45절)

- ㉠** (1) 그들은 백성들의 호의에 넘치는 섬김을 받고서는 기쁨으로 자기들의 직무에 충성하였다.
- (2)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제사하는 일과 결례(潔禮)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 (3) 이렇게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호의를 받아서 자기들의 직무에 충성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태도는 너무도 중요하였다.
- (4)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바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면에서 그 사명을 수행해 가게 되었다.
- (5) 이처럼 성도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참조, 마 25:14-30).

19. **㉠** 본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 과 ‘느헤미야’ 때를 연결시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6, 4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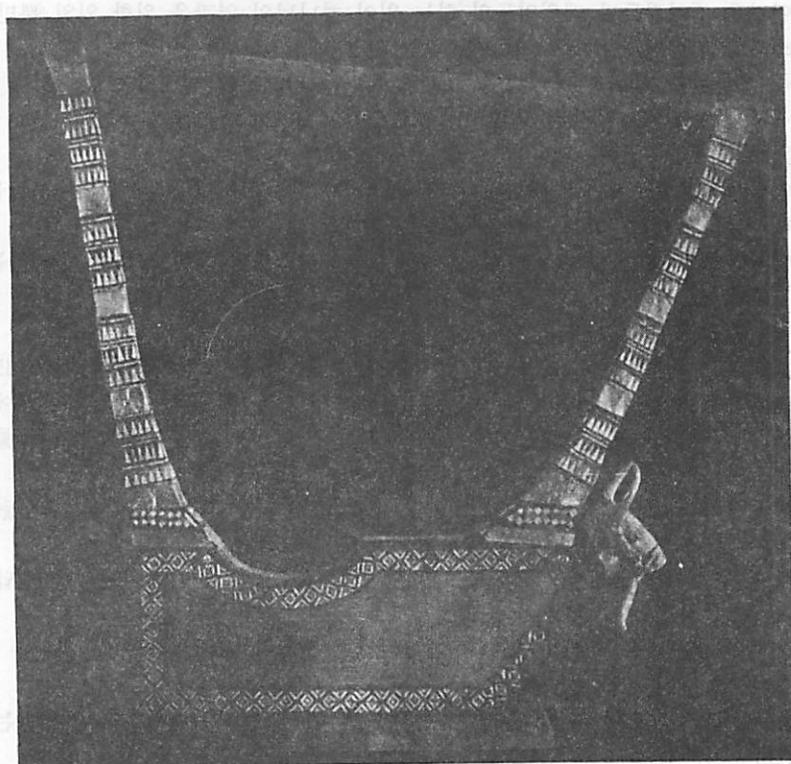
- ㉠** (1)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 의해 추진되었던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의 목표가 다윗 시대만큼의 회복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윗 시대 만큼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시 그들의 형편에 비해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수행

하였다.

- (4) 그리하여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
- (5)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최선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화보자료

수금(豎琴). 아래의 사진은 우르(Ur)에서 출토된 수금으로서 B.C. 250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가로 막대와 아래의 울림통 사이에 현(弦)이 연결된다.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불린 수금은 가장 고상한 악기로 여겨졌기에 주로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다(27절). 그러나 때로는 세속적인 악기로 사용되기도 했다(참조, 사 23:16). 본장에서 '다윗의 악기'라고 불린 악기들 가운데(36절)에는 수금도 포함된다(대상 15:16).

제 13 장 느헤미야가 실행(實行)한 개혁(改革)의 구체적 내용

단락구분 1-3 율법에 따라 민족에 섞인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다 / 4-9 성전의 골방을 정결케 하다 / 10-14 느헤미야가 성전 직무를 개혁하다 / 15-22 안식일 준수 / 23-29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다 / 30-31 레위인들의 직무를 구분하다

1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삼십 이 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20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 두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논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 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이며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 **㉠** 본장에 기술된 사건을 요약하라.

- ㉠**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重建)하여 거민들을 새롭게 충원(充員)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와 약속한 대로(참조, 2:6) 다시 바사로 돌아왔다.
- (2) 그러나 얼마 후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허락을 얻어(6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부패들을 남김없이 모두 쓸어 버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았다.
- (3) 구체적인 예로서 느헤미야는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거처를 쓸어 버리고 이전보다도 더욱 견고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4) 또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며 레위인들의 사역상 질서를 확립시켰다.
- (5) 이제 본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개혁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당시의 유다인들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이해해야 한다.
- (6)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의 믿음과 경건을 통해 실행되어졌던 예루살렘의 재건은 그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케 만든다.

2. **㉠** 암논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낭독된 때는 언제인가? (1-3절)

- ㉠** (1) 그것은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참조, 6:15)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다시 모여서(참조, 8:1, 2) 초막절을 지킬 때이다. 이때 에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참조, 8:18).
- (2) 그런데 그때 낭독한 율법의 말씀 중에 암논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총회(總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참조, 신 23:3-6).
- (3)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본 사건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4) 즉 끝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도비아에 대한 사건(4-9절)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과 당시에 순수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순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 (5)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을 철저한 배타주의적(排他主義的)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을 요구하신다(약 1:27).

3. **㉠** 암논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1, 2절)

- A** (1)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총회, 즉 여호와와의 총회(總會)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참조, 신 23:3-6).
- (2)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들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賂物)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詛呪)케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민 20:18-21; 22:1-24:25).
- (3) 그러므로 이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언약(참조, 창 12:2,3)의 성취이기도 하였다.
- (4)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하신 언약(言約)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간섭받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 4. C**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沒數)히 분리케 한 때는 언제인가? (3절)
- A** (1) 본장의 묘사로는 율법을 듣고 ‘곧’ 분리케 했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8장과 9장의 연결 관계로 보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율법을 듣고서 다시 모이는 그 동안이라고 보아야 옳다.
- (2)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 가운데 섞인 무리, 즉 모압과 암몬 사람들 및 모든 이방 사람들(참조, 9:2)을 모두 분리시켰다.
- (3) 그런데 에스라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 중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였으나(참조, 스 10:10-15)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유다 백성 중에서 분리하여 축출하였다.
- (4) 이러한 사건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강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일어난 사실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정결한 자들로써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참조, 마 5:48).
- 5. C** 도비야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 (4-9절)
- A** (1) 그것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였다.
- (2) 그러나 그런 사건의 가능성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잠재적으로 있었다.
- (3) 즉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참조, 3:1)은 이전(以前)에 도비야와 내통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6:17-19).
- (4)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악의 요소는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을 철저히 규명하여 제거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참조, 롬 3:23, 24).
- 6. C**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이스라엘 대적인 도비야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5절)
- A** (1) 엘리아십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정결하게 사용해야 할 성전의 한 큰 방을 대적인 도비야를 위해 내놓았다.
- (2) 이 방은 성전의 앞 뜰에 있는 방으로서(7절), 도비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의 거처로서 준비해 두었던 듯하다.
- (3)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할 대제사장으로서는 세속주의자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영광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대적 도비야와 타협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순결하지 못한 일이었다.
- (4) 이런 일을 한 엘리아십은 ‘대제사장’이 아닌 그저 ‘제사장’으로 격하되어 묘사되었다.
- (5)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의 이익만 탐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된다.
- 7. C** 도비야를 위해서 내 준 방은 원래 성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된 방인가? (5, 10절)
- A** (1) 그 방은 원래 소제물(素祭物)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

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준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 (2) 이상에서 보듯이 이 방에 저장되는 물질로 성전 예배의 모든 일들이 유지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했다.
- (3) 그런데 이런 방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곳에 있어서 관리되어야 할 물질은 아마도 엘리아십이 사복(私腹)을 채우는 데 이용된 듯하다.
- (4)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그 직무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 발버등을 친 것이다(10절).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고도 경건하게 지켜져야 할 성전 예배마저 경솔하게 여기고 만다.

8. **㉠** 느헤미야는 도비아 사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6절)

- ㉠** (1) 예루살렘 성곽(城廓)을 완성케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신앙으로 강하게 한 느헤미야는 당시에 제국의 황제이며 자기의 주군(主君)였던 아닥사스다 1세와 약속한 대로(참조, 2:6) 바벨론으로 돌아 가 자기의 행한 일들을 보고하고 있었다.
- (2) 그런데 이러한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음이 분명하다.
- (3)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목격했던 이스라엘 내의 그 많은 불법적 행위가 그렇게 '며칠 사이에' 발생하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추구해야 할 엘리아십은 오히려 대적과 타협하여 이 기회를 자기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이 방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악한 자들이 교묘하게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림을 명심하자(참조, 마 7:15-23).

9. **㉠**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왕으로 칭호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6절)

- ㉠** (1) 본문에서 보듯이 아닥사스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다.
- (2) 그런데 그를 바벨론 왕으로 칭호하는 이유는 바벨론은 바사의 행정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바사에 패하였을지라도 워낙 크고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국명이 계속 통용되었다.

10.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도비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6-9절)

- ㉠** (1)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도착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에게 다시 기한을 정한 다음(6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2)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 즉 원수 도비아에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성전 뜰에 있는 중요한 창고를 내어 주고 방을 꾸미어 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 (3)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심히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가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해 심히 근심하며 원수 도비아를 위해 갖춘 세간들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
- (4)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다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器皿)과 소제물과 유향(乳香)을 들여 놓게 하였다.
- (5) 여기서도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죄악에 대해 분노하는데서 머물지 않고 심히 근심하면서 불의를 제거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케 하였다.
- (6)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도 불의를 척결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저 비판만 하고 부수어뜨

리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심히 근심하고 하나님은 본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11. **㉠** 느헤미야가 도비아 사건 외에 계속하여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각기 자기들의 농토와 촌으로 도망한 사실이다.
- (2) 여기서 성전 예배의 큰 책임을 무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도망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먼저 그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주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 컸다.
- (3) 즉 이러한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기피는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며 성전 예배를 잘 유지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에 동조한 지도자들의 잘못에 의해 생긴 것이다.
- (4) 이처럼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기주의와 편의주의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끝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12. **㉠**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꾸짖었는가? (11절)

- ㉠** (1)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 즉 당시 백성들의 대표자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였다.
- (2) 그들은 이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행위를 동조하며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 바쳐야 할 물질들을 사육을 위해 사용하였다.
- (3) 그리하여 그들의 불충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바 되고 말았다.
- (4) 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그 좋아하는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눅 12:13-21).

13. **㉠** 느헤미야는 도망 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1절)

- ㉠** (1) 느헤미야는 각기 전리(田里)로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그들이 맡은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그들의 본래 처소에서 살도록 하였다.
- (2) 이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발동하여 강제로 그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려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음이 분명했다.
- (3)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방식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 느헤미야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호응하였는가? (12절)

- ㉠** (1) 이제 충직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려 하자 유다 백성 전체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행하였다.
- (2) 즉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 고간(庫間)에 들여 놓았다.
- (3) 이렇게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통치하자 백성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 (4) 이와 같이 올바르게 정직한 지도자 밑에서는 백성들도 바르게 행하게 된다.

15. **㉠**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고간(庫間)을 감독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 ㉠** (1) 제사장 켈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가 고간지기가 되었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은 부책임자가 되었다.
- (2) 당시에 그들은 재물을 다루어도 부정을 행치 아니하고 어려워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 (3) 그런데 이들이 맡은 일은 그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헌물들을 분배하는 회계의 일이었다.

(4) 이렇게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은 특별히 충직한 자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16. **㉠** 느헤미야는 안식일 성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15-22절)

- ㉠** (1)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육체 노동을 금했고 (15절) 또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는 유대인 (15절) 과 이방인 (16, 20절) 들을 경계하여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 (2) 또한 레위 사람들은 정결케 하여서 성문을 지키게 함으로 안식일에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식일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였다.
- (3) 물론 이런 외적인 통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 성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통제는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 (4) 그러나 이러한 외적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이다 (참조, 요 4:24).

17. **㉠** 느헤미야가 유대의 귀인들을 꾸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 중에 부분적으로 안식일에 노동하는 일을 경계한 후 (15절)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안식일에도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므로 유대 모든 귀인을 꾸짖었다.
- (2) 또한 느헤미야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전유대에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유대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유대 백성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 (3) 왜냐하면 유대의 귀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도자는 항상 대중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8. **㉠**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원인은 무엇인가? (18절)

- ㉠** (1) 느헤미야는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고 있던 고생과 시련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열조 (列祖) 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조, 겔 20:13; 22:8, 26; 23:38; 암 8:5).
- (2) 여기서 안식일이 준수되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이런 안식일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더럽혀질 때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상실된다.
- (4) 오늘날은 특별한 날을 중시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준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의의와 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더욱 그 의미와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9. **㉠**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취해 아내를 삼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23, 24절)

- ㉠** (1) 느헤미야는 유대 지역을 시찰하던 중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자들을 보고서 책망 (責望) 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촉구했다.
- (2)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것은 단순히 민족주의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 (3) 그것은 이방 결혼을 통해 자녀들이 이방 풍속에 젖어서 유대 방언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종교적 순결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참조, 신 7:3, 4).
- (4) 오늘날 성도들은 일부 물지각한 교인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른다고 해서 부화 뇌동 (附和雷同) 할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참조, 고후 6:14-18).

20. **㉠** 이방 결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교훈을 준 인물은 누구였는가? (26절)

- Ⓐ (1) 그는 열국(列國)의 수많은 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었다.
- (2)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큰 영광을 주셨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위해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년에는 그들로 인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왕상 11:1-8).
- (3)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교훈이 되었고 느헤미야에게도 큰 경계가 되었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스라엘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고 경계를 받아야 한다(참조, 딤후 3:16, 17).

21. ⓐ 느헤미야 당시에 이방 결혼으로 인해 빚어진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가? (28, 29절)

- Ⓐ (1) 이방인과 결혼하는 악습은 성전 예배의 중심 인물인 대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길 정도였다(참조, 21:6-8, 14, 15).
- (2) 즉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곧 요야다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았었다(참조, 2:10).
- (3) 이러한 작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조차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강대 세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 (4)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며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은 징벌을 받아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신앙이 저급한 신앙 수준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은 뿌리깊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롬 3:10-18).

22. ⓐ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28-31절)

- Ⓐ (1)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게 한 자들을 쫓아 내버렸다.
- (2) 그리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방 사람을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였다.
- (3) 또한 정결케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나누어서 차례를 정하여 성전 예배의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화목(火木)과 또 물질들을 적절하게 드리도록 하였다.
- (4)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품었던 소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해 갔다.
- (5) 이리하여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 (6)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가능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실감해야 한다.

본장의 요절

‘내 하나님이며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

연구자료

안식일과 주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율법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는 느헤미야의 2대 사역인데 본장에서는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 기록이 나타난다. 즉 나라를 잃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전전(轉轉)하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주어진 현실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이었기에 안식일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노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였다(15:22). 분노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쳤다. 본고는 이 같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바른 주일관(主日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1) 안식일

① 어원(語源) : 히브리어로 <샤바트>이며 그 동사형은 '쉬다', '중단하다', '끝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안식하신 것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창 2:2,3) 이스라엘에게는 정규적인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 요구되었다(출 20:8-11; 신 5:12-15).

② 의의 :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는 깊은 뜻이 있다(출 31:13). 또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뜻도 있다(신 5:15).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된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었기에 안식일을 범한 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출 31:14-17; 민 15:32-36). 뿐만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막 2:27)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출 31:16)과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이다(사 58:13, 14; 렘 17:19-27; 겔 22:8, 15).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안식일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점이다(히 4:4-11).

(2) 주일(Lord's Day)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요 20:26) 성령을 보내신 것도 바로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행 2장).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제 1:10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이 날이 예배를 위

한 특별한 날로 구별되어졌다(참조, 행 20:7; 고전 16:2).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에 예배를 한다. 이 같은 주일이 안식일의 성취라든가, 안식일이 주일의 모형이라는 언급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래서 A. D. 364년의 라오디게아 교회회의(Synod of Laodicea)에서는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확정하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휴식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특별하고도 은혜스러운 날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안식일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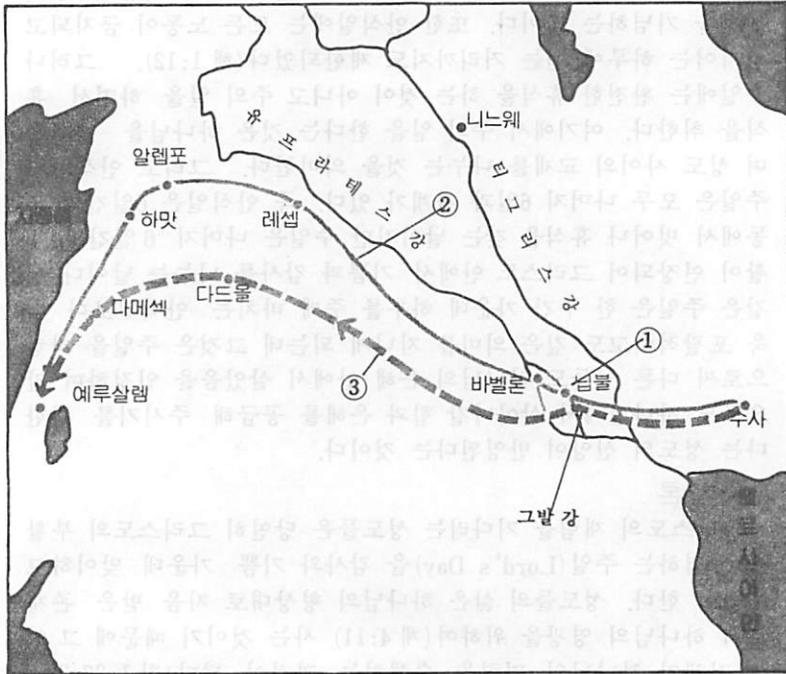
안식일과 주일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범위이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별되어 지키는 언약적인 절기였으나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고 심지어는 하루에 걷는 거리까지도 제한되었다(행 1:12). 그러나 주일에는 완전한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여기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사이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나머지 6일과 관계가 있다. 즉 안식일은 6일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는 날이지만 주일은 나머지 6일간의 생활이 연장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날이다. 이 같은 주일은 한 주간 가운데 하루를 주께 바치는 안식일보다 더욱 포괄적이고도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나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성도의 신앙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Lord's Day)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보내야 한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계 4:11)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된다(창 1:27, 28).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한 날을 주일이라고 하여 지킬 때에는 그날만이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기뻐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마 12:1-8; 눅 4:33-37; 13:10-17; 요 5:5-18), 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주의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처럼 주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날의 대표요, 감사와 기쁨, 주의 일로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다.

지도자료

팔레스틴으로의 귀환. B. 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에게 정복당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수 1:1-3). 그들의 귀환은 2차에 걸친 집단적 귀환 및 개인적인 귀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귀환 경로는 아래의 지도와 같다.



- 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의 님불(Nippur)에 정착하였었다(참조, 겔 1:1, 3).
- ②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귀환 경로이다(참조, 스 1:11-2:67). 이들의 귀환 연대는 B. C. 537내지 536년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때 귀환하지 못한 자들은 훗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였다.
- ③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 경로로서 아닥사스다(Artaxerxes I)의 관원이었던 에스라는 B. C. 444년에, 그리고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B. C. 45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참조, 2:1-11; 스 7:9).